선군시대어

선군시대어

조선·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2(2013)년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그 시대를 반영한 시대어들을 낳는다.

시대어는 생활과 투쟁속에서 태여나 널리 쓰이면서 당시의 시대상과 민심 등을 방불하면서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시대어를 가리켜 력사어라고도 하고 한 시대를 들여다보게 하는 창문이라고도 말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계승하시여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인 선군정치방식을 내놓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선군시대를 펼치시였다.

그이께서 이끄신 선군시대만큼 격동하는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 시대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때는 없을것이다.

선군조선의 시대어들이야말로 조선을 선군의 강국으로 빛내여오신 절세의 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의 대명사들이며 지워지지 않는 력사의 자욱이다.

이 책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령도업적, 위대한 선군령장,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위인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대어들을 소개한다.

편집부로부터

차　　례

1

2

3

1

김일성민족

지금껏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민족의 우수성과 긍지와 자부심에 대하여 제나름으로 말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에서 사는 민족적자랑,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에서 사는 민족적자랑, 인류문화발상지에서 사는 민족적자랑, 자연부원이 많은 나라에서 사는 민족적자랑…

하지만 민족의 진정한 우수성은 그 민족이 내세운 령도자의 위대성이며 민족의 최대의 영광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영광이다.

조선민족이 지난날 인류문화의 발상지인 삼천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온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렬강들의 각축전의 대상이 되고 인민들이 식민지노예의 설음을 안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으로 살길을 찾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은 바로 민족을 지키고 이끌어줄 위인을 모시지 못했기때문이였다.

조선민족은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심으로써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 인민, 위대한 인민으로 되였으며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3(1994)년 10월 1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

하자》에서 조선민족이 **김일성**민족이라는데 대하여 처음으로 밝히시였다.

또한 주체84(1995)년 1월 1일에는 사회주의조국과 조선민족은 **김일성**조국, **김일성**민족이라는것을 다시금 밝히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은 사회주의조국과 조선민족의 부강번영과 함께 영생하시게 되고 사회주의조국과 조선민족은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됨으로써 강성국가의 존엄높은 민족으로 끝없이 발전하게 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일성**민족으로 된 영광과 긍지를 만방에 소리높이 웨치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반만년의 유구한 조선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위업을 개척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조선민족의 새로운 탄생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원래 시조는 한겨레, 한민족의 첫 조상을 이르는 말이다.

단군을 시조로 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며 살아온 슬기로운 조선민족이 일제의 침략으로 민족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일제와의 피어린 항일대전을 벌려 빼앗긴 나라를 찾으시였다. 또한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덤벼든 미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였으며 재더미우에 전설

속의 천리마를 불러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 사회주의조선에 대하여, 조선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2월 11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일을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로 할데 대한 뜻깊은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최고뇌수로서, 수령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서 영생하고계십니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피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서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있다.

수령영생위업

수령영생위업은 혁명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영원불멸하게 하고 수령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게 하는 숭고한 위업이다.

수령영생위업실현은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사이다. 수령영생위업은 오직 선대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닌 후계자에 의해서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수령의 영생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사상과 업적의 영생이다. 그것은 바로 수령의 영생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업적의 위대성과 영원불멸성에 있기때문이다.

국제혁명운동사는 적지 않은 후계자들을 자기의 년대기들에 기록하고있지만 그 어느 후계자도 선대수령의 영생문제를 바로 제기하고 옳게 해결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수령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위대하다고 하여 수령이 저절로 영생하는것이 아니라 수령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후계자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수령영생위업이 실현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신 절세의 위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영원불멸하게 하며 수령이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게 하는것이 수령영생위업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과 심혈을 다 바치심으로써 수령영생위업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놓으시였다.

그이의 뜻을 받들어 조선에서는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법제화한 **김일성**헌법을 채택하였다.

혁명의 명맥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며 후대들의 도덕관을 보여주는 기본척도로 되는 수령영생의 성스러운 위업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완벽하게 해결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 그대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을 태양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여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한번 보여주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온 나라 곳곳에 영생탑으로 세우고 태양절과 함께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

조선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되였으며 주체의 태양 **김일성**동지와 선군의 태양 **김정일**동지의 태양상들이 주요 거리들과 기관들, 온 나라 가정들에 정중히 모셔졌다.

금수산태양궁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업적이 깃들어있고 태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는 주체의 최고성지이다.

주체101(2012)년 12월 17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1돐을 맞으며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관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훌륭히 꾸리는데 온갖 지성을 다 바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의 첫 명칭은 금수산의사당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무장투쟁 시기에는 백두밀림의 귀틀집에서,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시기

에는 평양의 해방산기슭 검소한 건물에서,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북방 고산진의 수수한 농가와 습기밴 지하갱도에서 온갖 시련을 다 겪으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잘 모시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금수산의사당을 건립하도록 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다음에는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숭엄하게 꾸리고 그곳에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의사당에서 사업하시기를 바라는 인민들의 간절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검소한 집무실과 야전렬차에서 사업하시다가 순직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그이를 훌륭한 의사당에 모시지 못한 한을 서거하신 다음에라도 풀어드리기로 결심하고 그이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고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영생홀과 립상홀, 울음홀과 훈장보존실, 사적렬차와 승용차, 사적배보존실들과 회의실들을 비롯한 금수산태양궁전의 내부가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꾸려졌으며 외부의 록지와 공원도 새롭게 꾸려졌다.

금수산태양궁전이 내용과 형식, 규모에서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가장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려지게 된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조선로동당과 군대, 인민의 충정의 일편단심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영원히 빛내여나가

도록 사회주의헌법서문을 수정보충하고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할데 대한 력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주체102(201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할데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인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전체 인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더없는 긍지로 소중히 간직할데 대한 법적의무를 규정하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단순한 건축예술의 산물이 아니라 자기 수령에 대한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낳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 대하처럼 흐르는 혁명의 성지이다.

태 양 상

태양상은 환히 웃으시며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주체의 태양 **김일성**동지와 선군의 태양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들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은 위대한 수령님과의 영결식때 처음으로 모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결식에 모시고 나갈 수령님의 초상화를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의 영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시고 제낀깃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더없이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며 서해갑문을 부감하시는 수령님의 사진을 원본으로 하여 수령님의 초상화를 잘 형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

시고는 수령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던 양복과 넥타이의 무늬와 특징에 대하여, 초상화액틀을 조선의 국화인 목란꽃 형태의 흰꽃으로 소담하게 형상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영결식연도에서 오직 한분만이 웃고 온 세상을 울게 한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은 만사람의 넋을 완전히 틀어잡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드팀없는 신념이 조선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되였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인민행렬차에서 서거하시였다.

청천벽력같은 민족대국상에 접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허둥지둥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았으나 그분의 동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였던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군인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친근하게 새겨져있는 잠바를 입으신 모습으로 형상한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조의식장들에 모시도록 하시였다. 하여 조선인민은 또 한분의 태양상을 모시게 되였다.

오늘 조선의 주요거리들과 기관청사들, 모든 가정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들이 정중히 모셔져 인민들의 마음속에 태양과 같은 따스함을 안겨주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고있다.

영 생 탑

영생탑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게시한 탑이다.

이 구호는 조선의 수도와 도, 시, 군소재지들에 정중히 모셔져있다. 특히 수도 평양의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들어가는 금성거리입구에 영생탑이 건립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과 영생축원의 마음을 안고 전국각지의 인민들은 위대한 은인, 자애로운 어버이들의 거룩한 모습을 심장으로 우러르며 영생탑건립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그리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신념을 담아 불멸의 글발들을 아로새기였다.

세상에는 각이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또 사람들의 이런 저런 념원을 담아 세운 탑들이 무수히 많다. 하지만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숭고한 마음을 담아 온 나라 방방곡곡의 좋은 위치들에 거의 동시에 수천여개를 일떠세운 영생탑과 같은 신념의 탑, 흠모의 탑은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태 양 절

태양절은 조선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칭송하며 뜻깊게 맞는 명절,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이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이 오늘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로 인류공동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되고있는 태양의 명절로 되기까지에는 혁명의 수령을 절대적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충정의 력사가 함축되여있다.

그이의 뜻을 받들어 주체63(1974)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당시)는 정령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인 4월 15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함에 대하여》를 채택공포하였으며 이때부터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인류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3년이 지난 주체86(1997)년 7월 8일을 맞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당시)은 공동결정서를 채택하여 주체년호와 함께 태양절을 제정하였다.

여기에는 영원히 변함없을 이날의 세계사적의미를 다시금 력사에 깊이 새기고 대를 이어 전해가려는 조선인민의 굳센 신념이 담겨져있다.

주체년호

주체년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해를 원년으로 하여 정한 년호이다.

년도표기법의 하나인 년호는 년도, 년간을 이루는 이름

으로서 B.C. 160년대 동방에서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봉건시기 제왕들이 자기의 통치가 잘되기를 바라면서 재위기간 한개 또는 몇개의 《좋은 뜻》의 년호를 지어 사용해왔다.

조선의 력사기록들에도《영락》,《건원》,《개국》등 년호들이 전해지고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기원도 년호와 같은 뜻으로 쓰이여오는데 석가모니가 죽은 해를 원년으로 하는 불교의 니와르나기원(불기), 그리스도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년을 원년으로 한 서력기원(그리스도기원),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메드가 메카로부터 메디나에로 간 해를 원년으로 하는 헤지라기원 등이 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1912년을 원년(주체1년)으로 하는 주체년호는 사용목적과 제정경위, 성격에서 기존의 모든 년대표기법들이나 년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태양의 년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주체1(1912)년은 수천년세월 짓밟히고 억눌리던 인민대중의 처지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력사적인 해이며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 혁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의 시원이 열린 사변적인 해이다.

하기에 주체86(1997)년 7월 8일을 맞으며 주체년호를 제정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당시)의 공동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주체년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9돐이 되는 주체86(1997)년 9월부터 사용되였다.

주체년호의 특징은 우선 그것이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맞이한 새로운 시대, 자주시대의 시원을 밝혀주는 혁명년호라는것이다.

또한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희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함축되여있는 영광스러운 년호라는것이다.

광명성절

광명성절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칭송하며 뜻깊게 맞는 명절,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고향집에서 탄생하시였을 때 항일혁명투사들은 그이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이어갈 백두광명성으로 열렬히 칭송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101(2012)년 1월 12일 특별보도를 발표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간절한 요청을 반영하여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한다는것을 결정공표하였다.

인류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선군의 새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

사상을 체계화하시여 진보적인류에게 안겨주시였으며 반제자주위업수행의 위력한 무기인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를 실천으로 검증하시고 현시대의 위력한 혁명로선, 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다.

광명성절의 제정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려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의지와 신념의 반영이다.

수 령 복

수령복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이 누리는 행복이다.

수령복은 인민이 누릴수 있는 행복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기쁨과 희망, 즐거움을 복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집약하여 담으며 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엮어왔다.

하지만 수령복이라는 말은 일찌기 없었다.

수령복은 위인중의 위인, 성인중의 성인을 배출한 인민, 그런 걸출한 위인을 자기의 수령으로 높이 모신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복이다.

수령복은 어느 나라 인민이나 절절히 갈망하면서도 쉽게 누릴수 없는 복이다.

조선민족, 조선인민은 만민이 우러르고 칭송하는 희세의 천출명장, 만민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모심으로써 최상의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이 세상 그 어느 인민도 지녀본적 없는 위대한 수령복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가장 존엄높은 위대한 인민으로 되였으며 자주적인간의 참된 삶의 보금자리인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사상과 령도, 덕망으로 구현하고 꽃피우시여 이 세상 제일 귀중한 모든것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걸출한 수령, 인자하고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최상의 경지에서 겸비하시였으며 세계가 우러르고 만민이 칭송하는 절세의 위인, 희세의 선군령장이시였다.

혁명하는 인민이 받아안은 수령복은 대를 이어 누릴 때 영원한 수령복으로 된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수령복이야말로 참다운 수령복이며 수령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여기에 인민이 누리는 수령복의 참의미가 있고 인민이 받아안은 행복의 진정한 높이가 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풍모,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조선을 주체의 한길, 선군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2

선 군

선군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라는 말이 20세기에 세상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세계어로 온 세계를 휩쓸었다면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주체라는 말과 함께 세계에 전파되는 시대어는 다름아닌 선군이다.

선군이라는 술어는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내놓으신것이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는 선군이라는 말자체가 없었다.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혁명의 절박한 요구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합법칙적요구, 세계의 자주와 평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내놓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은것은 인민생활이 곤난하다는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자주적인 인민, 자주적인 근위병이 되느냐, 또다시 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나서고있었기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를 풀수 있는 열쇠가 바로 총대를 강화하는데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자주성을 고수하는 문제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사활적인 문제이다. 자주성을 고수하지 못할 때 인민대중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공세로 하여 1990년대 중엽 조선에서는 군대와 인민앞에 자주냐, 노예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가 제기되였다.

미제는 1980년대말～1990년대초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붕괴된 국제적환경과 조선인민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조선의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였다.

조선에 대한 미제와 반동들의 광란적인 압살책동은 강도높은 군사적압력책동을 위주로 한 정치, 경제, 사상,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진행된 인류력사에서 있어보지 못한 가장 악랄한 공세였다.

선군정치는 미제의 이러한 강도높은 군사적압력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가장 견결한 반제적인 정치방식으로 완성되게 되였다.

선군의 길은 세계정치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전인미답의 어려운 길이였다. 그러나 이 길로 나가야만 령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조선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강도높은 군사적압력에 맞서 싸워 승리할수 있었다.

인류정치사에는 군사를 중시하는 정치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다 군대를 한갖 정치의 수단으로만 여겼지 정치를 주도해나가는 세력으로는 보지 못하였다.

선군정치에서는 혁명군대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를 구현하는데서 핵심이 되고 주력군으로 되고있다.

선군정치는 조성된 경제적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유일하게 옳은 길이였다.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로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진것과 때를 같이한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경제제재와 봉쇄책동,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등은 조선에 커다란 경제적난관을 조성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당시의 어려운 조건은 사회주의 건설을 로동계급보다 혁명성, 조직성, 규률성이 더 강한 사회정치적집단인 혁명군대에 의거하여 풀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기둥인 인민군대에 의거하는 정치방식만이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는 선견지명의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심으로써 조국도 수호하고 당도 강화하고 경제문제도 푸는 일석다조의 명처방을 내리시였다.

선군정치는 조국보위도 경제활성화도 인민생활보장도 다 해결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조선인민이 생사기로의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 선군의 길을 택하시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 사회주의운동발전, 조선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인류의 정의와 진보를 위한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다.

세계 100여개 나라의 각종 출판보도물들이 선군을 찬양하는 새 어휘들을 사용하고있다. 실로 새 세기의 시대어 선군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예속에 맞서 힘차게 나아가는 인류의 앞길에 정의와 진리,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리정표를 새겨주는 승리의 상징, 불멸의 기치이다.

선군정치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정치방식입니다.》

선군정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계승하여 내놓으신 독창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시찰로부터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 10년간 수백개 단위에 대한 인민군부대들의 현지지도를 통하여 인민군대안에 선군혁명위업계승의 기초를 튼튼히 쌓고 인민군대에 대한 군사작전적령도를 실현하심으로써 1960년대말부터 위대한 선군정치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서거를 계기로 조성된 엄혹한 정세를 타개해나가시기 위하여 주체84(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에게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강대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날강도 미제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에는 인민군대를 믿고 그에 의거하는 선군의 길로 드팀없이 나아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었으며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지도는 이미 오래전인 1960년대말부터 시작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보다 높은 단계에서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되는것을 알리는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박솔초소를 현지시찰하신 후 혁명적군인정신을 온 사회에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으며 선군혁명원칙을 구현한 강력한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시여 선군정치를 하나의 체계화된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완성시키시였다.

원래 선군이라는 말은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도, 사회주의정치사에도 있어본적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계기와 력사적단계를 거쳐 그 과학성, 진리성이 확증되고 그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게 하신 후인 주체88(1999)년 2월 어느날 자신의 정치는 선군정치라고 하시였다.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인 선군정치가 확립된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 발전과 인류정치사에서 하나의 거대한 발견으로 된다.

선군정치는 조선혁명과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선군정치를 지구우에 자주적인 새 세계, 정의와 평화, 번영의 새 세계를 일떠세울 희망의 정치, 전세계가 나아갈 앞길을 밝히는 광명의 정치라고 격찬하고있다.

준엄하고 복잡다단했던 지난 세기의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를 빛나는 사회주의건설성과로 장식하고 가장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결속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진격로를 휘황히 펼쳐놓은 것은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선군장정

선군장정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륭성번영할 강성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걷고걸으신 불멸의 로정들을 통털어 상징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장정이란 매우 먼길을 말한다.

그러나 선군장정은 단순히 멀고 긴 길이란 의미보다도 폭과 깊이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 무게를 헤아릴수 없는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는 시대어이다.

그것은 바로 선군장정이라는 시대어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대의 사랑과 혁명과 그 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로고와 심혈, 철의 의지와 담력이 함축되여있기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장군님처럼 꽃피는 정원이나 잠풍한 호수가, 안온한 서재가 아니라 찬바람, 눈보라 불어치고 검은구름 밀려오는 천리방선 조국의 고지, 전초선에 계시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보람으로, 긍지로, 락으로 여기신분은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걷고걸으신 수천수만리의 선군장정의 길은 숭고한 동지애를 수놓아오신 사랑의 길이며 동지애의 힘으로 난관을 헤쳐넘으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불멸의 장정이다.

그 불멸의 선군장정의 길에는 미끄러지는 야전차에 어깨를 들이밀고 오르신 아슬아슬한 칼벼랑길도 있었고 파도사나운 섬초소길도 있었으며 적아간이 서로 대치한 판문점길도 있었고 폭우와 무더위속에서 진행하신 삼복철강행군도 있었다.

주체94(2005)년 1월 9일 당, 국가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당의 기초축성시기에 새벽까지 일하고 잠간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군 하였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여 지금도 당과 국가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걸머지고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며 긴장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쉬임없이 이어가는 선군의 길에서 힘이 부칠 때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자니 이 길에서 순간도 멈춰설수 없습니다.》

선군혁명천만리로 이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은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시는 불멸의 령도사였고 불패의 군력으로 사회주의를 지켜주시는 위대한 수호자의 력사였으며 인민군장병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으로 아로새겨진 나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장정이 있어 반미대결전에서 승리한 선군조선이 있고 강성국가로 세상에 자랑떨치는 태양조선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였다.

총대철학

총대철학은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것이다.

총대철학은 혁명투쟁에서 총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총대에 의거한 혁명승리의 합법칙성을 밝힌 혁명철학, 정치철학이다.

총대철학은 주체사상을 근본바탕으로 하고있으며 총대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해명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에 기초하고있다.》

총대철학은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위업의 개척과정을 총대와 결부하여 원리적으로 밝혀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인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은 인민대중이 반동적폭력을 격파할수 있는 총대를 튼튼히 틀어쥘것을 요구한다.

혁명을 하려면 우선 인민대중이 각성하여 떨쳐나설뿐아니라 그들이 총대를 튼튼히 틀어쥐여야 한다.

착취계급, 지배계급의 반혁명적폭력을 격파하는 혁명은 총대를 틀어쥔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된다. 총대는 인민대중의 힘에서 기본을 이루며 총대를 쥔 인민대중의 힘은 반동적폭력을 타승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총대가 강하면 혁명의 정치적지반이 든든하게 된다.

인민대중은 폭력을 가진 반혁명세력을 혁명의 총대로써만 격파할수 있다.

총대철학은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의 전진과 완성과정을 총대와 결부하여 새롭게 원리적으로 밝혀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인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전진하며 완성된다. 총대는 혁명의 개척뿐아니라 그 전진과 완성의 전기간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총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시기에나 혁명이 전진할수 없으며 승리할수 없다. 그것은 혁명운동의 전과정이 대내적으로는 첨예한 계급투쟁을, 대외적으로는 치렬한 반제투쟁을 동반하기때문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인민의 정권이 수립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총대를 약화시키면 혁명이 중도반단되거나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어버릴수 있다.

총대는 혁명투쟁의 전기간 누가 누구를 하는 계급투쟁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게 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의 열매를 키우고 자래우며 지켜준다.

바로 여기에 총대철학의 다른 하나의 진리성이 있다. 총대철학은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원리적기초를 이룬다.

총대철학의 진리성에 기초하여 총대를 확고히 앞세우고 혁명을 전진시켜나가게 하는데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이 있다.

총 관

총관은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 변절하지 않는 동지라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주체의 총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다.

주체84(1995)년 6월 26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어리실 때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권총을 받으시던 때를 회상하시며

그때에는 수령님께서 왜 나에게 시계대신 권총을 주시였는가 하는것을 미처 다 몰랐다, 나는 곡절많은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 어린 나에게 시계대신 권총을 주시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언제나 총과 숨결을 같이하고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것이 다 변하여도 총만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에 대한 나의 지론이고 총관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총관은 세상에 총이 출현한 후 수백년세월 그 어느 명장이나 위인들도 밝히지 못한 심오한 원리이다.

총은 혁명가들의 영원한 길동무이다. 총은 혁명위업을 위해 싸우는 혁명가들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혁명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기쁨과 희망을 준다.

총의 본질적특성은 불변성에 있다.

이것은 동지의 본질적특성인 불변성과 일치한다. 총이 혁명가의 동지라는것은 불변성이라는 공통성에 기초하여 총과 동지가 하나의 의지로 통일되여있다는 뜻을 담고있으며 참다운 동지는 총과 같은 불변성을 가지고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결사옹위한다는 사상을 담고있다.

총의 정확성, 명중성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있다. 총을 옳바로 겨누고 정확히 방아쇠를 당기면 언제나 백발백중한다.

총의 정확성, 명중성과 같이 령도자에게 충실한 혁명가는

령도자가 준 과업수행에서 드팀을 모르며 최상의 결실로 령도자를 받든다.

총의 중요한 특성은 무자비성이다. 원쑤를 향해 쏘면 동요나 멈춤을 모르는 무자비성과 비타협성은 선군시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계급적원칙성과 일치한다. 누가 누구를 하는 계급투쟁에서 동요하거나 인정에 사로잡혀 원칙을 줴버리면 자기가 죽을뿐아니라 혁명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

총은 이처럼 자주적인간이 한시도 떼여놓을수 없는 영원한 길동무이고 언제나 배신을 모르는 그 불변성과 임무수행에서의 정확성, 명확성 그리고 원쑤에 대한 무자비성, 비타협성으로 하여 혁명가의 참다운 동지로 되는것이다.

혁명의 주력군

혁명의 주력군은 혁명투쟁의 주타격방향에서 혁명을 주도적으로 추진시켜나가는 기본부대를 말한다.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세의 변화와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혁명의 주력군문제에 대한 새로운 견해, 새로운 관점을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빛나게 해결하신 중요한 내용은 로동계급이 아니라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핵심부대로 규정하신것이다.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대, 어떤 혁명에서나 고정불변한것으로 될수 없다.

프랑스 빠리의 몽마르뜨언덕에 울려퍼졌던 《인터나쇼날》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며 자본의 아성에로 육박해나가던 시기에는 마치를 든 로동계급이 혁명의 주력군이였다.

맑스는 로동자들을 일으켜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고 이끌었다. 로자간의 모순이 폭발하던 계급투쟁의 시대에서 로동계급은 언제나 혁명의 주력군이였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적운명개척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시대로 력사의 흐름이 바뀌여지고 혁명군대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진 오늘 혁명의 주력군은 로동계급이 될수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면 과연 혁명의 주력군은 누가 되여야 하는가.

이 력사적인 물음에 명철한 대답을 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력사적단계에서 인민군대가 차지하고있는 선도자적지위와 역할, 사회의 그 어느 집단과도 견줄수 없는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으로부터 지난시기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웠던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독창적인 혁명방식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가는데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그 어느 집단도 인민군대를 대신할수 없다는것을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인민군대를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 체현자, 선도자로, 혁명의 기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규정하시고 내세워주시였던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신것은 혁명의 주력군문제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주체적관점에서 해결하신 위대한 업적이다.

혁명적군인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은 조선에서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민군군인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하여 창조한 선군시대의 위대한 혁명정신이다.

조선인민군대에서 창조되고 높이 발양되고있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위해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싸우는 사생결단의 투쟁정신이며 그 어떤 대적도 맞받아물리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과감히 뚫고나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정신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위대한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떨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상정신적무기로 된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안변청년발전소건설과정에 창조된 혁명정신이다.

주체85(1996)년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맡은 군인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병사들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심장의 구호를 높이 부르며 방대한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제꼈다.

이 과정에 발휘된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은 참으로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것이였다.

사갱을 굴진하던 한 구분대에서는 불시에 25m구간이 붕락되여 27명의 군인건설자들이 갱막장에 갇히게 되였다.

그들은 숨막히는 갱막장에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지만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구원전투를 벌리는 군인들이 배관을 자르고 그속으로 식사를 들여보내려하자 《먹을것보다 굴진을 계속할수 있게 압축공기를 보내달라》고 웨쳤다.

주체85(1996)년 6월 10일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시며 건설장을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위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군인들이 건설한 언제와 취수구를 비롯한 지상구조물과 험준한 산악을 뚫고 뻗어간 대형물길굴을 돌아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이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만난을 뚫고 나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은 오늘 전인민적사상감정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 사회의 정치적지반은 그 어느때보다도 굳건히 다져졌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조선인민이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승리를 이룩하게 한 사상정신으로, 시대정신으로 되였다.

혁명적군인문화

혁명적군인문화는 혁명적군인정신이 맥박치고 전투적랑만과 풍만한 정서가 넘쳐나는 조선인민군대의 문화이다.

인민군대는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고리를 맡아수행하는 환경속에서 선군시대의 본보기가 될만 한 훌륭한 사회주의 새 문화를 창조하였다.

주체86(1997)년 4월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림이 무성하고 꽃이 만발한 부대주변을 보시고 만족해하시며 이처럼 인민군대가 사는곳에서는 새 문화가 창조되여야 한다고, 군인들은 싸움에서는 맹수가 되여야 하며 생활에서는 새 문화의 창조자가 되여야 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날 부대의 여러곳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 부대의 모범을 전군이 따라배우도록 하며 온 사회가 인민군대를 본받아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후 주체87(1998)년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인민군표준병영을 돌아보시며 오늘 인민군대는 사상에서도 투쟁에서도 생활에서도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군대가 사는 모든 곳에서는 선군시대의 새 문화가 창조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주체92(2003)년 4월 김형직군의대학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대학구내와 교사, 문화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고 생활문화와 위생환경, 교육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김형직군의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혁명적군인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만사람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이렇듯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이것은 애국의 열정으로 불타는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선군시대의 새 문화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92(2003)년 7월에도 조선인민군 어느 한 군부대를 시찰하시면서 중대들이 모두가 휴양소처럼 알뜰하게 꾸려져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에 창조

된 군인문화가 전군, 온 사회에 더욱 활짝 꽃피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선군시대에 창조된 군인문화에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인 복무정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락관주의, 령도자와 혁명전사들사이에 발양되는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뜨거운 동지애를 비롯하여 인민군군인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인생활이 잘 반영되여있다.

군민일치사상

군민일치사상은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말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 이것이 군민일치사상의 본질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입니다.》

조선의 군민일치는 오랜 력사적뿌리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던 시기에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 살수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과의 련계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다져진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하시였다.

유기체의 동맥에는 경화현상이 있을수 있지만 군대와 인민사이의 혈연적관계에서는 그 어떤 자그마한 틈과 불신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군민관계에 대한 그이의 철학이며 좌우명이였다.

군민일치는 인민군대의 힘의 원천이며 그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군민일치는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여 혁명대오전반을 정예화할수 있게 한다.

오늘 조선의 인민군군인들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군민일치의 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며 인민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위해서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숭고한 정치도덕적풍모가 남김없이 발양되고있다.

조선인민은 인민군대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우고 사업과 생활에 구현할뿐아니라 인민군대를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며 성심성의로 원호하고있다.

렬차숙소

렬차숙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달리는 렬차나 승용차안이 곧 침실이거나 식당으로 되였던데서 생겨난 시대어이다.

주체87(1998)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하실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여러 중소형발전소들을 돌아보시고 떠나시려할 때 도의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장군님, 우리 자강도인민들이 몇년전부터 장군님께서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성의껏 꾸려놓은 숙소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전 현지지도일정도 다 끝냈는데 그곳에 가시여 점심

식사도 하시고 휴식하시였으면 합니다.》라고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기에 갈것 같지 못하다고 하시며 자강도인민들이 도에 꾸려놓은 숙소에서 침식을 할것을 바라는데 고맙습니다, 전체 인민이 강행군을 하는 때인데 내가 어떻게 뜨뜻한 온돌방을 찾아다니겠습니까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받들어주는 인민들의 마음을 생각하여서라도 나는 더 긴장하게 강행군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자신보다 먼저 인민을 생각하시고 기쁨도 고생도 인민들과 함께 하시는데서 둘도 없는 락을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소박한 소원마저 뒤로 미루시고 렬차숙소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렬차숙소에서 집무도 보시고 생활도 하시면서 인민을 위해 헌신의 천만리길을 달리고 또 달리시였으며 이 렬차를 타고 인민을 찾아가시다가 위대한 생애를 마치시였다.

야전솜옷

야전솜옷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10여년세월 최전연초소와 공장, 농촌 등 병사들과 인민들이 있는 조국의 방방곡곡을 찾으실 때 입으신 솜옷을 말한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기회에 준엄한 시련의 고비를 헤쳐오시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더듬으시였다.

고난의 행군시기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우리는 그 나날들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안광

에는 뜨거운 추억이 비껴흐르고있었다.

한동안 말씀을 이어나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솜옷을 보시면서 나는 이 솜옷을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던 때부터 오늘까지 입고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눈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입으신 솜옷에 쏠리였다.

10여년간 입으신 솜옷!

무엇이라 말할수 없는 뜨거운 격정이 장내에 굽이쳤다.

솜옷이란 입을수록 얇아지는 법이다. 그래서 솜옷을 어느정도 입고나면 새것과 바꾸어입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그런데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며 언제나 전선길에 계시는 장군님께서는 10여년나마 한벌의 솜옷으로 지내오시였다.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머금으며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렀다. 그가운데서도 한 일군의 심정은 남달리 더 뜨거워졌다.

얼마전 그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집무실에 들어선 그에게 새로 지은 솜옷을 내놓으시면서 동무가 입고다니는 솜옷이 얇아진것 같아서 따로 한벌 마련한것이니 어서 입어보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의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의 온몸을 사로잡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솜옷이 얇아진것을 두고 걱정만 하였을뿐 두툼한 솜옷 한벌 지어드리지도 못한채 그이의 사랑어린 솜옷을 먼저 받아안게 되는 죄송스러움이였다.

하지만 늘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여온 그 일군도 그이의 솜옷이 10여년세월 입으신 솜옷이라는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어버이사랑으로 바늘뜸 바람까지 막아주는 두툼한 솜옷을 입은 온 나라 병사들, 아니 인민모두가 알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가슴을 칠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몸둘바를 몰라하는 일군들의 심정을 풀어주시려는듯 수행성원들도 솜이 얇아졌으니 솜옷을 바꾸어입으라고 여러번 권고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솜옷은 선군혁명의 상징, 고난의 행군의 상징입니다, 나는 그 준엄한 력사를 잊을수 없어서 이 솜옷을 벗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또다시 온 장내에 숭엄한 격정의 파도를 일으켰다.

정녕 그이의 솜옷은 조선의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의 흔적, 성스러운 선군혁명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진 력사에 길이 전해질 야전솜옷이였다.

부자부대

부자부대는 겨울에도 갖가지 남새를 비롯하여 주부식물들을 종류별로 갖추어놓고 군인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높이고 있는 인민군대의 어느 한 구분대를 두고 생겨난 말이다.

새 세기에 처음으로 맞이한 1월 1일 아침이였다.

이른새벽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찾아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고나신 그길로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구분대를 방문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구분대의 남새온실에도 들리시였다.

밖에서는 한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있었지만 온실안에서는 부루, 고추, 도마도, 통배추 등 갖가지 남새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만족하신 안색으로 먹음직스럽게 자란 남새들을 바라보시며 남새재배를 잘하고있다고 치하하시면서 온실의 온도는 얼마인가, 비닐박막은 얼마나 쓰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나서 빨갛게 익은 도마도를 보시며 감기에 걸린 군인들에게 온실에서 생산한 도마도를 먹이면 그들이 보약처럼 생각하면서 좋아할것입니다라고 친어버이정이 넘친 말씀을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교양실과 병실을 거쳐 흰쌀, 콩 등 알곡류와 건미역, 건간장, 건된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부식물들이 종류별로 규모있게 정돈되여있는 량식창고와 부식물창고들을 일일이 돌아보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이 부대 지휘관들처럼 군인생활개선을 위해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노력하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군인들의 물질생활수준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다고 하시며 부대가 살림살이를 잘한다고, 정말 부자부대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식당과 취사장에도 들리시여 군인들이 명절음식으로 무엇을 해먹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뜨김이 뽀얗게 서린 취사장의 배식대우에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찰떡이며 절편, 기름튀기, 수수떡을 비롯한 여러가지 푸짐한 음식들이 준비되여있었다.

그것을 보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더없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부대의 한 일군이 명절이기때문에 규정량외의 물자를 더 공급하여 차린것이라고 사실대로 보고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잘하였다고, 명절날에는 푸짐히 먹어야 군사복무를 할 재미가 있다고, 군인들은 명절날에 너무 배불리 먹고 배가 좀 아파도 또 명절날을 기다린다고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모두가 그이의 말씀에 따라 웃으면서도 전사들의 마음속생각까지 그리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 자애깊은 그 사랑에 목이 메여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구분대에서 생산한 큰 무우들도 보아주시며 그것이 구분대군인들이 병영주변의 비경지들에 구뎅이를 파고 퇴비를 넣어 생산한 무우라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무우가 정말 잘되였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동행한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군인들이 저녁마다 무우를 쪼개여 한토막씩 먹으면 사과를 먹는것 못지 않게 좋아할것이라고, 지금은 무우를 먹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부대의 경험을 전군에 일반화하여야 하겠다고, 인민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이 부대 지휘관들처럼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이악하게 투쟁하여 병사들의 구미에 맞는 여러가지 부식물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새해 첫날아침부터 전사들의 식생활정형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그것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이 있었기에 병사들은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을 빛나는 위훈으로 수놓을수 있는것이다.

부자중대

부자중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의 어느 한 중대에서 부업을 잘하여 가득 채운 량식창고와 수많은 집짐승들을 보시고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다.

주체89(2000)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전연의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현지시찰하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축사에도 들리시였다.

염소우리, 토끼우리, 소우리, 닭과 게사니우리 등 축사는 그야말로 목장을 방불케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채 인민군대에서 토끼를 대대적으로 길러야 하겠다고, 토끼는 빨리 크고 번식률도 높으며 고기맛도 좋다고 하시며 토끼기르기 방법까지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게사니와 닭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저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가고, 축사에 게사니, 오리, 닭, 염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집짐승들이 많은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식물창고로 걸음을 옮기시면서 부자중대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어 염소우리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염소젖을

많이 짜자면 기본은 종자가 좋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단히 만족하신 어조로 이 중대는 완전히 부자중대입니다라고 또다시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부자중대, 말만 들어도 흐뭇한 부식물감들과 집짐승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중대들의 살림살이모습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낳은 현실이며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릴 한마음으로 전투훈련도 부업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해제끼는 인민군대의 중대들의 알뜰한 살림살이기풍이 가져온 풍만한 결실이다.

다박솔중대

다박솔중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4(1995)년 1월 1일에 어느 한 고사포중대를 찾으시여 푸르싱싱한 다박솔이 뒤덮인 포진지들을 돌아보시고 정을 담아 붙여주신 이름이다.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워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력사는 곧 인민군대의 세포이며 기본전투단위인 중대강화를 위한 헌신으로 이어진 나날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처음 맞이한 새해의 첫 현지지도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중대를 찾는것으로부터 시작하시였다.

주체84(1995)년 새해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어느 한 고사포중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군인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시며 1포진지앞에 이르시였다.

푸르싱싱한 다박솔로 뒤덮여있는 포진지였다. 그 포진지

와 주변을 유정한 눈길로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다박솔중대요, 이런 곳을 다박솔중대라고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중대군인들이 화력진지를 잘 꾸린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중대화력진지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1포진지 흉장우에 올라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군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하시였다.

1포진지에서 부대의 지휘관들로부터 전투임무와 전투준비정형을 상세히 료해하고나신 그이께서는 먼저 중대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보아주시였다.

지휘관의 구령과 함께 1포성원들의 훈련이 시작되였다.

순간의 지체도 없이 자기 번수동작을 수행하는 포수들의 모습은 참으로 민첩하고 정확하였다.

이번에는 중대전체가 하는 화력복무훈련이 진행되였다.

화력진지의 각 포성원들이 일시에 자기 포들을 차지하였다.

중대군인들은 여러가지 전투동작들을 불이 번쩍나게 수행해나갔다.

정월의 찬 날씨였건만 그들의 붉게 상기된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히였고 두눈에는 멸적의 투지가 어리였다.

중대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찬바람부는 고지에서 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서야 포진지에서 내리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한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은 중대화력진지의 다박솔이 무척 인상에 깊으신듯 고지를

정겹게 둘러보시며 1중대는 다박솔중대이라고 다시금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였다.

다박솔중대라고 거듭 외우시는 그이의 말씀속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중대병사들이 더운 가슴을 대고 지켜선 고지와 초소에 대한 끝없는 애정이 담겨져있었다.

감나무중대

감나무중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름지어주신 녀성해안포중대이다.

주체84(1995)년 새해 첫 현지지도를 인민군대의 중대로부터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2월초 동해안의 어느 한 녀성해안포중대를 찾아주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그들의 예술소조공연도 보아주시고 중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주체86(1997)년 11월 험한 마식령을 넘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를 반대방향으로 돌리게 하시여 현지지도일정에는 없었던 해안포중대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감나무아래에서 녀성해안포병들과 담화도 나누시며 중대에 오누이쌍둥이도 있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은 전사도 있다는데 누구들인가고 하시며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여 나이는 몇살이며 부모는 무슨 일을 하는가, 고향은 어디며 형제는 몇인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옛 해안포병의 딸에게 어머니가 지금 몇살인가고 묻고나시여 이 동무는 아버지도 군복을 입고있고 형제들도 다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군인가정의 자식이라고 대견해하시며 누구보다 군사복무를 잘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오누이쌍둥이전사들과 담화하시면서 쌍둥이인데 복무년한이 다르니 군사복무조례에 따라 군사칭호가 서로 다르겠다고 말씀하시자 쌍둥이형제는 영원히 군복을 벗지 않겠다고 담차게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신 후 녀성해안포병들을 곁에 부르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쌍둥이형제와 옛 녀성해안포병의 딸과는 특별히 따로 찍으시였다.

옛 해안포병의 딸과 사진을 찍으실 때 그이께서는 그가 손에 들고있던 감알을 놓으려고 하자 그러지 말고 감을 들고 사진을 찍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후 주체89(2000)년 2월 1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감나무중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나무중대는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견결히 보위해가는 자랑할만 한 녀성혁명가의 집단으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숭고한 투쟁정신, 투쟁기풍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조선녀성의 모범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과 감나무중대는 이렇게 혈연의 정으로 더욱 굳건히 이어졌다.

주체101(2012)년 8월 23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나무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감나무중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시면서 감나무중대는 선군혁명령도사의 갈피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로새겨진 중대, 그것으로 하여 온 나라, 온 세상이 다 아는 중대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병사들을 한명한명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군인들과 사진을 찍으시느라 장시간 서있어야 하시였지만 그이께서는 시종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날은 정녕 선군력사의 갈피에 길이 아로새겨질 또 하나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태여난 날이였다.

들꽃중대

들꽃중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다년간 아름다운 꽃들을 골라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에 드리군 하여 조선의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솔재령초소의 녀성중대이다.

솔재령초소의 녀성군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온 강산이 눈물에 젖어 슬픔에 잠겨있던 비분의 나날 초소에서 10리, 20리 먼곳까지 달려가 군복자락을 땀으로 적시며 심산속에 피는 연보라색의 도라지꽃이며 나리꽃, 이름모를 하얀 꽃들, 바늘잎모양의 갖가지 고운 풀들로 꽃다발을 엮고 그 밑에 《평양으로 달리는 녀성군인들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장군님을 보위하는 녀성결사대가 되리》 등 글발들을 새겨 평양으로 가는 길손들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만수대언덕으로 달려가고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우리는 초소를 지켜야 하는 병사들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들꽃다발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드려달라고 부탁하군 하였다.

력사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사랑과 충실성의 이야기가 아무리 많다 해도 조선의 인민군군인들이 지닌 이런 높은 경지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를 보여주는 이야기는 그 어디

에도 있어본적이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이름없는 산중초소에서 전사의 도리를 다해가는 녀성군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보내주시였으며 그들이 수도에 올라와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 수령님의 동상에 직접 꽃다발을 드리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후 10년세월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시였던 그 모든 사연을 다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뜻깊은 태양절을 앞둔 주체93(2004)년 4월 어느날 들꽃중대의 주인공들을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기특한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모두를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이 녀성중대는 미담도 많고 일화도 많은 중대라고, 그전에는 감나무중대가 나와 세상에 크게 소문을 냈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유명한 중대가 나와 전군이 다 알게 되였다고, 이 중대가 그 이름만 가지고도 전국에 소문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들꽃중대, 이 부름에는 대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의 언덕에 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수령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일떠섰는가를 보여주는 충실성의 력사가 함축되여있으며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대로 전군이 어떻게 자기 령도자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인 사상적 순결체로 준비되였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결사의 각오가 함축되여있다.

3

강계정신

강계정신은 1990년대 후반기에 조선의 자강도에서 창조된 사회주의수호정신이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한 투쟁정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심어주시고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주신 강계정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정신이며 그 어떤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자기가 사는 고장을 제힘으로 가꾸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신심에 넘쳐 락관적으로 살며 일해나가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주체87(1998)년 1월 자강땅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중소형발전소들과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의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시고나서 나는 이번에 자강도에 와서 이곳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성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자강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의도하고 내세운것,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옳았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자강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과 같은 어려운 때에 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 하는것을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와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강선을 찾으시고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도록 전국에

내세우신것처럼 강행군을 하는 오늘에 와서는 강계시를 내세우자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6월과 10월에 또다시 자강도를 찾으시여 강계정신의 창조자들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도록 고무해주시면서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도, 시, 군당책임일군들, 공장당비서들이 자강도안의 공장들에 와보고 그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험한 령을 넘고 사나운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자강땅에 영광의 자욱을 새기심으로써 새로운 혁명정신, 강계정신이 온 나라에 세차게 나래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강계정신은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의 구현이다.

강계정신에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숭고한 지향과 자체의 힘으로 남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전진해나가려는 강렬한 요구가 담겨져있다.

령도자에 대한 참다운 충정은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조선혁명이 엄혹한 시련에 처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받든 자강도인민들은 주저앉아 우는 소리를 한것이 아니라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모든것이 부족하였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식량이 아니라 일감을 달라고 한것이 자강도로동계급이며 죽어도 기계설비만은 베고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한것이 자강도사람들이였다.

령도자를 받드는 자세와 립장이 남달리 투철하였기에 자강도 인민들은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강땅을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려놓을수 있었다.

강계정신에는 또한 자기를 믿고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의 요구가 구현되여있다. 식량난, 원료난, 동력난이 닥쳐온 고난의 시기 없는것,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자강도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산악같이 일떠서 가는 곳마다에 중소형발전소들과 아담하고 산뜻한 문화주택들을 일떠세우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강계정신에는 또한 가는 길 험난해도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안고 투쟁하고 창조하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그대로 구현되여있다.

자강도사람들은 형언할수 없는 고난속에서도 모두가 떨쳐나서 공장과 일터를 사회주의맛이 나게 꾸리고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으뜸이 되게 해놓았다. 자강도사람들의 일본새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부강한 조국을 건설할수 있다는 굳은 신심과 락관이 비껴있으며 바로 여기에 장군님의 선군령도가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자신만만한 배짱이 있다.

강계정신은 조선인민이 고난의 행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였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정신으로, 새 세기 혁명적대진군의 불길을 일으킨 시대정신으로 되였다.

성강의 봉화

성강의 봉화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를 높이 받들고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추켜든 혁명적대고조의 봉화이다.

주체87(1998)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체 인민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북방의 강재생산기지인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업소의 실태를 료해하신 후 관계부문 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철강재생산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는 강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자강도에 갔을 때에도 우리 인민, 우리 로동계급을 믿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려는 자신의 결심이 옳았다는것을 확신하였다면 오늘 성강에서는 얼마든지 조성된 난국을 뚫고 더 높은 봉우리에로 올라설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적들이 다시는 우리 나라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강성국가를 건설하자면 전체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때마다 강철로 당을 받들어온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의 선봉에 설것을 호소하시였다. 그이의 뜻을 받들어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다시한번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갈것을 전국의 모든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이 호소에 호응하는 궐기모임들이 전국 각지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진행되여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되였다.

성강의 봉화는 령도자와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일심단결의 봉화이며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이려는 자력갱생의 봉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은 봉화이다.

대홍단기풍

대홍단기풍은 대홍단군일군들이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길에서 높이 발휘한 혁명적인 투쟁기풍, 생활기풍이다.

주체87(1998)년 10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홍단군종합농장과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 대홍단5호발전소, 2호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면서 군내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홍단군의 일군들이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언제나 군중의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하였기때문에 모든 일이 잘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인민을 위한 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전국의 모든 일군들이 이들의 모범을 따라 인민의 충복답게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대홍단군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였다. 그들은 우에다 손을 내밀거나 남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오직 군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꾸릴 일념을 안고 모든것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해결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군내 주민들과 아무런 간격도 없이 생활하면서 무슨 일에서나 앞장에 서고 대중의 모범이 되였으며 특히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한개 군의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는 대홍단기풍으로 주체의 강성국가건설사에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태천의 기상

태천의 기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완강한 투쟁정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의 투쟁기풍과 일본새, 원대한 포부와 래일에 대한 희망에 넘치는 락천적인 생활기풍이다.

태천의 기상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태천지구에 거창한 규모의 대수력발전기지를 선군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혁명적기질의 숭고한 발현이다.

주체96(2007)년 1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태천4호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선군시대와 더불어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며 그 정신, 그 본때, 그 기풍과 일본새를 태천의 기상이라고 명명해주시였다.

원래 태천이란 큰 내, 큰 강이라는 뜻으로서 곧 대령강을 가리키는 말이며 그 류역에 자리잡은 한 고장을 예로부터 태천이라 불러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태천지구를 여러차례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수력발전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큰 규모의 태천 1호, 2호, 3호, 5호발전소건설을 완공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2(2003)년 12월 어느날 또다시 태천4호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시였으며 태천의 청년돌격대원들과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수력발전소건설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태천의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불사신처럼 일떠서 영웅적위훈과 불굴의 기상을 떨치였다.

드넓은 대령강을 가로막고 거창하게 일떠선 언제와 푸른물 출렁이며 끝없이 펼쳐진 대인공호수, 발전기실과 배전실마다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려는 태천의 일군들과 청년건설자들의 투쟁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이 뜨겁게 스며있다.

태천의 기상은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새로운 년대를 열어나가는 대담한 공격정신으로서 끊임없는 비약을 창조해온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정신의 상징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사에 빛나고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것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기에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간직

하고 투쟁한 조선의 로동계급의 혁명적랑만과 락관주의를 반영하여 나온 구호이다.

구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자강도로동계급속에서 발단되여 나온 구호이다.

혁명적인 구호, 미래에 대한 락관을 안겨주는 구호는 철두철미 수령의 령도밑에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반영하여 나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7(1998)년 1월 수백여리의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자강도인민들을 찾으시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며 일하는 자강도사람들의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높이 평가하신 그이께서는 나는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땅우에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웁시다라고 하시며 자강도인민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자강도사람들은 거리와 공장구내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려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주체87(1998)년 6월 1일 또다시 자강도로동계급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일터마다에 큼직하게 써붙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보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랑만과 락관주의가 반영된 훌륭한 구호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동행한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강도인민들속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고있습니다. 자강도사람들은 의지가 강하며 패배주의란 말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자강도로동계급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기대를 세워서는 안된다, 굶어죽어도 기계설비만은 베고 죽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였다고 하는데 그 정신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강도사람들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는 거리와 공장구내에 써붙인 구호에서도 잘 나타나고있습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는 참으로 좋은 구호입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이 혁명적인 구호는 나라가 그처럼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땅을 찾으시여 자강도인민들에게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심어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 나온 시대정신의 발현인것이다.

신념과 락관의 구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고난과 시련을 웃으며 함께 헤쳐나가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랑만적인 구호이다.

사회주의본태

사회주의본태는 사회주의의 고유한 모습을 말한다.

사회주의의 고유한 모습이라고 하면 자본주의사회와 구별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모든 곤난을 이겨낸 자강도사람들의 투쟁정신, 투쟁모습이

사회주의본태이다.

사회주의의 본태를 살리는것은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의 본태가 살아있다는것은 사회주의가 활력에 넘쳐 전진한다는것을 말하며 사회주의의 본태가 사라져간다는것은 사회주의가 변질되여간다는것을 말한다.

결국 사회주의를 고수한다는것은 사회주의가 본태를 잃지 않도록 한다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이며 그 우월성과 위력의 원천도 집단주의에 있다.

사회주의의 본태는 우선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로 나타난다.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동지적으로 굳게 뭉쳐 싸워나가는데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다.

일심단결, 그것은 전체 인민이 령도자를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도덕의리의 순결체이며 당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이고 질서이며 서로 돕고 이끌며 고락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해나가는 동지의 세계이다.

사회주의의 본태는 또한 인민의 리익,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혁명적원칙을 견지해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데 대한 원칙,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원칙,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한 원칙을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들이 있으며 사회

주의의 본태가 고수되자면 이러한 혁명적원칙들이 철저히 구현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본태를 살려나가자면 어떤 경우에도 혁명적 원칙을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의 본태는 또한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건전한 생활양식에서 표현된다.

사회주의에는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꾸리는것으로부터 언어례절과 결혼식, 옷차림과 몸단장, 식생활 등에서 자기의 고유한 생활양식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생활양식의 요구대로 생활해나갈 때 사회주의의 본태를 살려 나갈수 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돌아보시면서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과 투쟁정신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시하여주신 구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돌아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 시각 거창한 창조물들이 태여날 때마다 가슴벅차게 느끼면서도 터놓치 못했던 그 시대적 감각을 구호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로 집대성하여 밝혀주시였다.

조선에서 제일 큰 간석지인 대계도간석지는 이미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과 발기에 의하여 염주군과 철산군의 앞바다를 가로막아 건설한 간석지이다. 1986년에 완성되여 농사를 지어오다가 1997년 8월의 해일피해로 다시 건설한것이다. 수천정보나 되는 거대한 면적을 가진 대계도

간석지의 외곽제방의 총 연장길이는 무려 수십리에 달한다.

주체99(2010)년 7월 1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날바다를 헤가르며 련연히 뻗어간 수십리의 제방들로 둘러막힌 대평야를 방불케 하는 개간된 간석지를 바라보시면서 서해갑문에 못지 않는 대자연개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 와서 대계도간석지건설장을 부감한 곳은 가차도전망대였는데 오늘 와서 보니 더 멋있다고 하시며 지난 시기 터진 방조제를 절대로 막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는다 해도 몇십년이 걸려야 한다고 시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데 그것만 보아도 대계도간석지건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대계도간석지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자연개조사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영웅들만이 해낼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광란하는 자연의 횡포를 과감히 박차고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로동당시대에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간석지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대계도간석지의 발기자는 어버이수령님이시라고, 우리 수령님의 뜻이 실현되였다고 하시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일을 참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감막이를 한 구간에 《당이 결심

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새긴 구조물을 세웠는데 후대들에게 간석지건설자들의 자랑찬 투쟁정신과 열렬한 조국애를 전하여주는 의미에서도 아주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구호는 1980년대 인민군대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놓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와 같은 대자연개조사업은 영웅적건설자들만이 해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간석지건설자들은 다 조국의 지도를 넓히는데 기여한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평안북도에서 대계도간석지건설을 완공함으로써 9월에 열리는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 선물을 마련하였다고,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선물가운데 이 이상 위대하고 훌륭한 선물이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대계도간석지건설자들에 대한 표창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건설자들모두가 영웅이라고 하시면서 평안북도 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에는 **김일성**훈장을 수여하며 대계도 간석지설계도에는 **김일성**상을 수여할것을 제의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구호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대오에 기폭마냥 나붓기며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기적과 영웅적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이 구호에는 조선의 결심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결심이며 그것은 곧 조선인민의 실천이고 승리이며 기적이라는 심오한 철리가 담겨져있으며 력사의 광풍을 짓부시며 그 어떤 요새도 과감히 뚫고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조선인민의 필승의 신념과 조선의 자존심, 영웅적 본때가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이 구호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며 또 그 길에 민족만대의 행복과 번영의 길이 있다는 철리가 담겨져있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는 신념의 노래되여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이 구호는 모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선군시대 병사들의 숭고한 미래관이 반영된 구호이다.

주체99(2010)년 4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석수떨어지는 지하막장에 친히 들어가시여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애국의 구호, 량심의 글발을 새기고 공사속도를 비상히 높이면서도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나가는 군인건설자들의 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병사들이 지하궁전의 벽면처럼 정갈하게 피복을 씌운 하부수실의 입구에 현판처럼 써붙인 이 글발.

천길땅속에 묻혀있는 진주보석을 찾으신듯 그 글발이 새겨진 한장의 막장사진을 안고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물길굴에서 본 그 구호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우리 병사들만이 생각할수 있는 정말 훌륭한 구호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그들의 고결한 투쟁정신을 전체 인민이 본받아야 할 시대적본보기로 내세워주시였다.

선군시대 창조물들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하자는 구호는 위대한 장군님과 사상과 뜻과 정신을 함께 하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열렬한 애국충정과 미래관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조선인민군대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신념의 구호이다.

이 구호에는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우며 조국의 번영과 후손만대를 위해 고귀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자는 혁명적자각과 량심이 새겨져있다.

희천속도

희천속도는 선군시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혁명적군인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발전소건설속도이다

희천속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희천발전소건설자들에 의하여 창조되였다.

주체98(2009)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언제건설장을 굽어보시며 희천2호발전소 언제건설장에 6달만에 다시 왔는데 그동안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발전소언제건설이 많이 진척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몇달전에 오셨을 때 산천의 목가적인 풍경속에 한장의 설계도면과 전망계획도밖에는 볼것이 없었던 이곳에

전혀 상상밖의 대격전장이 펼쳐진것이 너무나도 놀라우시여 전번에 왔을 때에는 지금 속보판이 세워져있는 곳이 언덕이였던것 같은데 이제는 언제아래가 되였다고 하시며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시기 중요대상공사를 많이 해제낀 공로있는 부대인것만큼 희천발전소 굴뚫기공사에서도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고무된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하여 중앙기관과 각 도의 돌격대원들은 수십리 물길굴을 토막내여 각기 자기들이 맡은 구간의 작업갱굴진을 끝내고 벌써 물길굴뚫기에 진입하고있었고 도로건설자들은 측량조차 할수 없이 험하고 가파로운 수십리 령기슭을 정복하는 도로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었다.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굽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희천2호발전소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니 발전소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이 한눈에 안겨오는데 마치 한폭의 그림같다고 하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장에 흐르고있는 분과 초는 그대로 비약이고 혁신이라고,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는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상이 나래치고있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고 하시면서 **《희천발전소건설속도가 바로 선군시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혁명적군인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연유와 세멘트, 자동차와 굴착기를 비롯한 모든 설비와 자재를 무조건 제때에 최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주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그로부터 몇달후인 주체99(2010)년 1월 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선군조선의 기상을 높이 떨치고 있는 전체 건설자들에게 특별감사문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믿음, 기대에 의하여 창조된 희천속도는 선군천리마를 타고 강성국가에로 비약해나가는 대고조시대를 추동하는 위대한 사회주의건설속도였다.

단 숨 에

단숨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결사관철하는 조선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기풍을 표현하는 말이다.

주체98(2009)년 9월 1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룡림언제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완공된 언제에 서시여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산중턱에 새겨진 글발을 손들어 가리키며 말씀하시였다.

《산중턱에 <단숨에>라는 글발을 써놓았는데 단숨에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군인건설자들은 말그대로 언제건설을 단숨에 해제꼈습니다. <단숨에>라는 세 글자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결사관철하는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그대로 함축되여있습니다.

앞으로 <단숨에>라는 글자를 돌에 깊이 새겨 먼 후날에

가서도 후대들이 룡림언제건설에서 발휘한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련방의 씨비리 및 원동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방문을 마치고 주체100(2011)년 8월 30일 조국으로 돌아오신 직후였다.

이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5월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셨을 때처럼 희천발전소 룡림언제부터 찾으시였다.

병사들의 위훈을 하나하나 다 찾아 한눈에 안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단숨에라는 글발을 가리키시며 자신께서 전번에 이야기한대로 글자들을 돌에 깊이 새겨놓으니 한결 무게있어보인다고, 단숨에, 이 세 글자에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이 그대로 함축되여있다고 하시며 먼 후날 후대들이 돌에 새긴 이 글발을 보면서 최고사령관의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한 우리 군인건설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투쟁기풍을 가슴뜨겁게 추억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희천발전소 룡림언제건설장에서 군인건설자들이 높이 발휘한 단숨에의 공격정신은 함남땅에서도 기적을 낳았다.

주체100(2011)년 12월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후 급수분사업소 침전지를 돌아보자고 왔다고 하시면서 부감대에 오르시였다.

이 침전지에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흥남지구의 17개 중요공장, 기업소들의 공업용수를 보장해주고있었다.

맑은 물이 출렁이는 침전지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

서는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내가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할 때 동행하였던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함경남도에서 그만한 로력으로는 나에게 보고한 날자보다 훨씬 오랜 기일이 걸려야 침전지에 쌓인 감탕을 퍼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민군대가 희천의 <단숨에>정신을 함남땅으로 옮겨 그 공사를 한주일동안에 와닥닥 해제끼겠다는 문건을 나에게 올려보냈습니다. 나는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올려보낸 문건을 보고 좋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무조건 인민군대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풀라는 지시를 주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그해 10월에 있었던 일을 깊은 감동속에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10월 16일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실 때 동행한 일군이 기업소의 침전지에 많이 쌓여있는 감탕으로 하여 흥남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에 보내주는 공업용수의 질이 낮아져 생산에서 지장을 받고있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고 공장, 기업소들을 며칠동안 세우더라도 감탕을 빨리 퍼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때 도의 책임일군이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6개 공장, 기업소 로력 740여명으로 돌격대를 조직하여 10월안으로 다 퍼내겠다고 보고드렸다. 하지만 도에서는 공사량이 너무 엄청나서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망설이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시를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이 공사장으로 달려왔던것이다.

도의 책임일군은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서 장군님께 보고드렸다.

《위대한 장군님, 이번에 인민군군인들이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 급수분사업소 침전지에서 단 6일동안에 8만여㎥의 감탕을 퍼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없이 만족해하시며 인민군대가 침전지에 쌓인 감탕을 짧은 기간에 퍼냈기때문에 흥남지구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이 며칠만에 다시 생산을 시작할수 있었다고,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침전지정리공사에 인민군대를 동원하였으니 그 공사를 그처럼 짧은 기간에 해제낄수 있었지 함경남도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근엄하신 안색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다가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고 력사에 길이 빛날 성스러운 투쟁을 통해 우리는 인민군장병들이 지닌 혁명적군인정신, 단숨에의 공격정신이 있기에 그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승리만을 떨칠수 있으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단숨에의 공격정신!

이것이야말로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힘의 원천이며 위력한 추동력이라는 철의 진리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깊이깊이 새겨졌다.

4

선군8경

조선의 선군시대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사항전의 시대인 동시에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변혁하기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시대이다. 영웅적투쟁과 거창한 변혁으로 약동하는 이 위대한 시대에 조선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선경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펼쳐지고있다.

자기 조국, 자기 고장의 아름다운 경치와 세태를 8가지로 꼽으며 널리 자랑하여오던 조선인민은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절경들을 선군8경으로 명명하였다.

선군8경에는 백두산의 해돋이, 다박솔초소의 설경, 철령의 철쭉, 장자강의 불야경, 울림폭포의 메아리, 한드레벌의 지평선,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범안리의 선경이 속한다.

선군8경은 시대의 새로운 자연풍치를 대표하는것만큼 자연미 그 자체로서도 희한한 절경을 이루고있으며 이와 함께 조선의 위대한 시대정신을 반영하고있다.

백두산의 해돋이

선군8경의 첫번째 순서로 꼽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백두산의 일만경치가운데서도 제일 아름다운 경관이다.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산이며 조선인민이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으로 우러르는 백두산은 일찌기 조선8경의 첫손가락에 꼽혀왔지만 장엄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해돋이장관으로 하여 더욱 신비롭고 숭엄하게 안겨온다.

이른새벽의 어두운 구름속에서 한점의 가는 빛이 솟구쳐올라 점차 굵게 퍼져오르면서 잠간사이에 구름떼를 뒤번져놓는다.

하늘이 어디고 땅이 어디냐싶게 소소리높은 기이한 절벽들과 천지의 푸른 수면을 온통 하나의 진홍빛으로 물들여놓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장쾌함과 신비함의 절정을 이룬다.

백두산의 해돋이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그 멋이 서로 다르며 보는 장소와 사상감정에 따라 그 느낌이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장관이다.

조선에서 고난의 행군시기이던 어느해 10월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시던 길에 몸소 새벽어둠을 헤치시며 백두산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의 해돋이를 바라보시면서 백두산의 해돋이를 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야 하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더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시며 그래서 자신께서는 언제나 백두산의 해돋이를 사랑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수백만년전 열세번의 거대한 용암분출로 백두산이 형성된이래 해돋이는 백두산의 나이만큼 불타올랐을것이지만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그때부터 더욱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고 미래에 대한 락관으로 투지와 용맹을 백배해주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과 기상이 그대로 어려있는 선군조선의 해돋이이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백두산해돋이를 선군시대의 절경으로 내세우고 끝없이 사랑하는것이다.

다박솔초소의 설경

선군8경에 속하는 다박솔초소의 설경은 류다르게 이채를 띠는 풍경이다.

다보록하게 가지가 퍼진 잔솔잎우에 얹힌 하얀 눈송이들이 해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황홀경은 한낮에 보아도 좋고 노을빛이 어리는 저녁에 보아도 좋다.

하지만 다박솔초소의 설경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 언덕에 오르시였던 주체84(1995)년 1월 1일의 이른 아침처럼 해가 솟아오를 때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펼친다.

아침노을이 피여나는 하늘가에 불덩어리같은 태양이 솟아오르면 다박솔우에 쌓인 하얀 눈이 금시 연분홍빛을 띠다가 다시 서서히 붉어지면서 온 다박솔언덕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모습은 그대로 한폭의 그림을 련상케 한다.

키낮은 다박솔이 땅이 보이지 않게 꽉 들어찬 다박솔언덕은 사계절 푸르싱싱함을 자랑하는 절경이지만 조선인민은 누구나 다박솔초소의 설경을 더더욱 사랑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소를 찾으셨던 그날의 설경은 참으로 장관이였다.

촘촘히 늘어선 다박솔에 밤새 내려앉은 서리꽃들이 아침해살을 받아 눈부신 빛을 뿌리고있어 희한한 설경을

이루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초소의 설경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이런 곳을 다박솔중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때부터 조선인민의 마음속에는 다박솔이라는 유정한 이름이 간직되고 다박솔초소의 설경은 선군조선의 절경으로 더더욱 빛나게 된것이다.

철령의 철쭉

선군8경의 하나로 꼽는 철령의 철쭉도 선군혁명추억과 더불어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사연깊은 꽃이다.

해발 677m의 철령은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로서 그 굽이가 아흔아홉이나 되는 험한 령이다.

안개도 쉬여오른다는 이 굽이 많고 가파로운 험한 령에도 해마다 4월말과 5월에는 아름다운 철쭉꽃바다가 펼쳐져 온 산을 붉게 물들인다.

령길이며 멀고 가까운 산릉선과 계곡마다에 피여나는 철령의 철쭉은 연분홍빛갈과 아름답고 청신한 모습으로도 황홀하지만 철령이라는 그 이름과 더불어 더욱더 정깊고 숭엄하게 안겨온다.

조선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1990년대 후반기의 준엄한 나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전연초소들을 찾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낮이건 밤이건 마다하지 않으시고 10여차례 철령을 넘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해 4월 아름다운 철쭉꽃풍경앞에서 바쁘신 걸음을 멈추시고 철쭉꽃은 원래 진달래꽃이

피였다가 질 때가 되여야 피는 꽃인데 이렇게 때이르게 피여났다고 하시며 만시름 잊으신듯 철쭉꽃 만발한 철령을 굽어보시였다. 철령의 철쭉은 선군의 길을 억세게 걸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말없이 크나큰 고무와 힘을 안겨드리였다.

인적드문 험한 령길에 소문없이 피고지던 철쭉이 오늘은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의 상징으로 높이 솟아 빛나는 철령과 함께 조선의 천만군민이 사랑하는 꽃으로 력사에 길이 전해지고있다.

장자강의 불야경

선군8경에 속하는 장자강의 불야경은 신비로운 자연이 펼친 장관도 아니고 세월의 흐름이 만들어낸 절경도 아니다.

장자강은 그 길이가 230여㎞로서 자강도에서 제일 큰 강이다.

밤에 자강도의 소재지인 강계시 류동뒤산에서 바라보느라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모신 넓은 광장의 환한 불빛이며 강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아빠트들의 창가마다에서 쏟아져나오는 밝은 불빛들, 거리와 유보도마다에 유정하게 흐르는 가로등불빛들과 물우에 두둥실 뜬 유람선같은 수많은 봉사망들과 건물들의 눈부신 불빛들, 밤하늘의 별무리가 내려앉은듯 온 강계시가 불빛으로 차넘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7(1998)년 1월 북방의 사나운 대소한추위를 무릅쓰시고 자강땅을 찾으시여 6천여리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강계정신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그날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자강땅을 다녀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이곳 인민들이 신념과 투쟁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리는 불씨로 되였으며 오늘은 장자강의 불야경을 장쾌하게 펼쳐놓았다.

이 사연깊은 불야경과 더불어 자강도는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더없이 정든 고장으로 되였으며 선군조선의 새 절경을 꽃피운 력사의 땅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울림폭포의 메아리

선군8경의 하나인 울림폭포의 메아리는 높은 산중턱에서 쏟아져내리는 폭포의 모습과 10리밖에서도 들리는 메아리로 하여 절승경개로 꼽힌다.

울림폭포는 강원도 문천시, 천내군 동흥리, 법동군 룡포리가 접하고있는 마식령산줄기의 울림령에 위치하고있다.

울림폭포는 폭포소리가 법동, 문천, 천내지방을 뒤흔들었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울림폭포의 신비함은 그 이름처럼 신기한 메아리에 있다. 세면이 아아한 절벽으로 둘러막힌 기묘한 골짜기에서 울리는 폭포의 메아리는 10리밖에서도 들린다. 특히 륙담령마루의 번개정각에서 들으면 5리나 떨어진 곳이지만 폭포밑에서보다 그 울림이 더 크고 더 뚜렷하게 들려온다.

인적없는 태고의 밀림과 첩첩준령에 가로막혀 수수천년 그 울림소리조차 외롭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울림폭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의 뜻을 높이 받든 인민군군인들에 의하여 발굴정리되였다.

울림령을 개발하고 새로 길을 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받은 인민군군인들은 험준한 천연요새를 개척하던 중 울림폭포를 발견하게 되였던것이다.

새로 찾아낸 울림폭포골의 아름다운 자연경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 명승지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하여 또 한가지 공적을 세웠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울림령에서 새로 찾아낸 명소들을 원상그대로 보존하면서 인민들의 문화휴식장소로 잘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주체90(2001)년 8월 26일에는 몸소 울림령지구를 찾으시고 울림폭포골 자연경치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참관도로를 닦아놓으니 인민들이 이곳에 찾아와 즐겁게 휴식의 한때를 보내면서 이 일대의 경치를 마음껏 구경하게 되였다고, 인민들이 천하절경을 이룬 울림폭포골을 보게 된것이 더없이 기쁘다고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한드레벌의 지평선

선군8경에는 평안북도 태천군의 남부 대령강과 그 지류 천방강연안에 새롭게 펼쳐진 일망무제한 한드레벌의 지평선도 있다.

조선에서 선군시대에 사회주의땅답게 천지개벽된 무수한 벌들가운데서 한드레벌의 풍경은 단연 첫자리에 꼽을수 있는 절경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9(2000)년 1월 24일 한드레벌을 찾으시여 아득한 지평선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천지개벽이 되였다고 만족해하시였다.

날이 갈수록 흥해만 간다고 그 이름도 정답게 불리우는

은흥리의 방울산에 올라 무성한 복숭아나무와 활짝 핀 목화꽃속에 묻히여 한드레벌의 지평선을 부감하는 멋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10리나 되는 직선포전도로를 중심으로 바둑판처럼 규모있게 째인 한드레벌은 토지정리하기 전에 비하여 60여정보나 더 늘어났다.

벼바다 설레이는 청신한 가을날 아침 6시 30분경이면 두모산에 떠오르는 아침해살이 안개속에 잠긴 벌판으로 퍼져나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맞붙은것과 같은 황홀함의 절정을 이룬다.

신비하게도 저녁 6시 30분경이면 무연한 벌판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노을로 하여 한드레벌의 지평선은 더 한껏 아름다와보인다.

한드레벌은 그 이름에도 많은 사연을 담고있다.

옛날에는 군데군데 물웅뎅이를 파놓고 용드레질로 올망졸망한 뙈기논들에 물을 한드레씩 퍼서 고달프게 농사를 짓던 곳이여서 한드레벌이라는 눈물겨운 이름으로 불리웠다. 지난날의 가난과 락후의 흔적이 영영 사라졌지만 벌의 이름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어 전변의 력사를 후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에 따라 한드레벌은 오늘도 옛 이름 그대로 불리우며 조선의 대지의 어제와 오늘의 하늘땅 같은 차이를 가슴후련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선군8경의 하나인 대홍단의 감자꽃바다는 조선을 감자명산지로 만들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하시

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이 비껴있는 사회주의 선경이다.

감자꽃은 어디에서나 볼수 있지만 대홍단벌에 피여난 감자꽃바다는 조선의 북방에 펼쳐진 장관중의 장관이다.

원래 감자꽃은 흰색과 연보라색을 띠게 되는데 대홍단의 감자꽃은 거의 흰색을 띠는것이 특징이다.

6월말부터 피기 시작한 감자꽃은 7월 중순과 말경에 이르면 온 대홍단벌을 하얗게 뒤덮는다.

일망무제한 그 감자꽃바다속에 서면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하얀 감자꽃들이 설레이는 그 장관에서 흰 파도 넘실거리는 바다의 장쾌함을 느끼게 되며 감자꽃바다의 황홀함을 가슴에 안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의 서해곡창인 열두삼천리벌에 비기시여 그 이름 지어주신 백두삼천리벌의 대홍단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장정의 길에서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주체87(1998)년 10월 1일은 대홍단벌에 아름다운 절경을 안아온 력사의 날이였다.

그날이 있어 대홍단벌의 감자농사에서는 전환이 일어났으니 대홍단의 감자꽃바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결심에 따라 마련된 선군조선의 새 풍경이다.

범안리의 선경

선군8경의 하나인 범안리의 선경은 가장 준엄하고 시련에 찼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이 신념과 의지의 힘으로 펼쳐놓은 사회주의농촌선경이다.

범안리는 조선의 황해북도 서흥군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한마리의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양같기도 하고 또 기러기를 많이 볼수 있다고도 하여 범안리라고 이름지어진 이 마을은 여러 낮은 산들이 군데군데 솟아있는 구릉지대로 되여있다.

범안리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아담하고 산뜻한 기와집들이 줄당콩넝쿨과 갖가지 아름다운 꽃속에 묻혀있고 회관, 탁아소, 유치원, 리발소를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다.

양어장입구에는 이 고장 사람들이 샘줄기로 자랑하는 원소가 있다. 물온도가 겨울에는 12℃, 여름에는 13℃인 이 원소의 샘물이 흘러드는 양어장에서는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펄펄 뛴다.

양어장 량옆에는 새파란 지붕을 떠인 집짐승우리들이 보기좋게 있고 뚝길을 따라 버드나무와 관상용뚝나무들이 우거져있다.

마을뒤산은 갖가지 과일나무들로 뒤덮여있고 리의 북부경계지역으로 흐르는 서흥강에는 범안발전소가 들어앉아있다. 자동수문이 도입되고 발전기도 특이하게 설치된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범안리사람들은 밥도 짓고 난방도 보장하면서 문화정서생활을 즐긴다.

범안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스며있는 력사의 땅이다.

주체46(1957)년 5월 어느날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샘터아래에 먼저 양어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부터 물길을 길게 내여 양어장과 물길에서 온도가 높아진 다음에 논밭에 물을 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양어장에서는 칠색송어를 기르고 산기슭에는 살림집들을 지으며 그뒤 야산에 과수원을 조성하여 사과, 배, 복숭아, 포도나무들을 심으면 마을의 풍치도 좋아지고 참 멋있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8(1999)년 11월 양어장면적을 대담하게 늘이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범안리를 일신시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일떠선 범안리 사람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이 고장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꽃핀 력사의 땅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주체90(2001)년 7월 11일 범안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름다운 마을풍경을 부감하시며 무릉도원이 따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이고 사회주의선경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선군9경

선군9경은 조선의 선군시대에 펼쳐진 류다른 콩풍경을 말한다.

새로 태여난 류다른 콩풍경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결정체이며 그이께서 직접 이름지어주신 풍경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7(2008)년 1월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고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는 과정에 부대

지휘관들이 후방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콩창고에 콩가마니들이 쌓여있는것을 보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나는 부대, 구분대들을 현지시찰하면서 콩농사를 잘하여 콩창고에 콩가마니를 무드히 쌓아놓은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쁩니다. 지금은 어느 부대, 구분대에 가보아도 콩창고가 있습니다. 해방후 우리 나라 농촌들에 현물세창고는 있었어도 콩창고는 없었습니다. 인민군부대, 구분대들에 있는 콩창고는 선군시대의 산물입니다. 콩창고에 콩가마니들이 쌓여있는것도 하나의 풍경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해말 려단직속 자동차중대를 현지시찰하면서 선군8경에 콩가마니들이 쌓여있는 새로운 풍경을 더 포함시키면 선군9경이 될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콩농사에서도 인민군대가 온 나라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은 콩농사를 알심있게 함으로써 창고마다에 콩마대를 그득히 쌓아놓고 다양한 콩음식으로 식생활을 높여 고향의 부모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튼튼한 체력을 가지게 되였다.

인민군대의 일본새가 온 나라에 일반화됨으로써 조선에서는 콩농사에서 보기드문 풍작이 이룩되게 되였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볼수록 흐뭇한 콩작황을 두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응결체라고 하면서 선군9경으로 널리 자랑하고있다.

선군10경

선군10경은 조선의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풍요한 가을풍경을 말한다.

주체98(2009)년 10월 8일 또다시 미곡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의 가을풍경에서 이윽토록 시선을 떼지 못하시다가 미곡협동농장의 가을풍경이 정말 멋있다고, 미곡벌의 가을풍경은 조선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미곡협동농장은 말그대로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금 선군시대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경치가 선군9경으로 불리우고있는데 이 농장의 풍요한 가을풍경까지 포함시켜 선군10경으로 불러야 할것 같습니다.》

산기슭마다에 즐비하게 새로 일떠선 살림집이며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면서 벼단을 실어나르는 뜨락또르들, 바람결에 실려오는 구수한 낟알향기와 과일향기…

미곡협동농장의 가을풍경을 바라보느라면 살기좋고 문명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된 조선의 농촌의 래일이 안겨와 흐뭇한 심정을 금할수 없다.

선군11경

선군11경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풍경을 말한다.

종이우에 자로 금을 그은것 같은 규격포전들이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져있고 병사들이 사열을 받듯이 하얀 과일나무지지대들이 일매지게 줄지어선 광경이며 별장이나 휴양

각 같은 살림집들은 조선의 선군시대 과수업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희한한 절경이다.

주체98(2009)년 11월 2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시였다.

시종 만족을 금치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만점짜리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하시며 지금까지 조선에 선군10경이 생겨났는데 이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희한한 풍경까지 포함하여 선군11경이라고 해야 할것 같다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풍경은 선군11경의 하나로 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오늘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과수밭과 희한한 살림집들뿐아니라 현대적인 과일가공기지들과 축산기지들을 갖춘 선군시대의 새로운 절경으로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되고있다.

선군12경

선군12경은 룡정의 양어바다풍경을 말한다.

마를줄 모르는 룡정원소의 물, 그 주변에 사열을 받는 열병대오를 방불케 하듯 주런이 전개되여있는 여러 형식의 야외양어못들, 철갑상어알깨우기실, 물려과장, 배합먹이가공장, 단백먹이가공장, 종합지휘실…

이 모든것이 정신이 번쩍 들고 희한하며 감탄이 절로 나오는 룡정양어장의 풍경이다.

룡정양어장은 현대화, 과학화수준도 높다. 종합지휘실에 설치해놓은 현시판을 통하여 야외양어못들의 물량, 페하, 산소량, 물고기들의 생리상태를 실시간적으로 장악할수

있게 하였으며 산소보장과 먹이공급에 대한 자동지령체계를 세워놓았다.

야외양어못들에서는 철갑상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떼지어다니며 야외원형못들에 있는 철갑상어들은 크고 멋있어 20㎏정도 되는것도 있고 40㎏, 60㎏정도 되는것도 있는데 어찌 보면 소형잠수함 같다.

철갑상어들이 꼬리를 흐느적이며 유유히 헤염쳐다니는 것은 볼수록 희한하다.

양어장에는 미꾸라지못도 꾸려져있고 단백곤충서식장과 우렝이알깨우기장도 꾸려져있다.

주체99(2010)년 11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룡정양어장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니 룡정양어장이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이 일대가 천지개벽되였다고, 숲이 무성하고 꽃이 피는 계절에는 룡정양어장의 풍경이 정말 멋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할 룡정의 양어바다는 선군12경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선언하시듯 말씀하시였다.

《룡정양어장은 혁명적군인정신이 낳은 선군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입니다》

6대명산

6대명산은 지난 시기 5대명산으로 불리우던 백두산과 금강산, 묘향산과 구월산, 지리산과 함께 칠보산을 포함한 조선의 이름난 명산들을 말한다.

예로부터 칠보산은 산과 바다의 뛰여난 풍치로 하여《함북금강》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름도 진귀한 일곱가지의 보물에 비기여 칠보산이라고 불리워왔다.

조선의 선조들은 철따라 아름답게 단장되는 칠보산의 경치를 두고 봄이면 백화만발한《꽃동산》, 여름에는 록음이 우거진 《록음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피는 《홍아산》, 겨울에는 흰눈으로 은빛단장한 《설백산》이라고 자랑하여왔다.

하지만 지난날 조선에서는 5개의 산을 명산으로 꼽으면서도 풍치수려하고 아름다운 칠보산을 명산으로 일러주지 않았다. 한것은 바로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통치배들이 함경북도를 사람못살 곳으로 치부하면서 이곳을 정배살이고장으로 삼았기 때문이였다.

오랜 세월 그 아름다움을 세상사람들에게 선조차 보이지 못했던 칠보산이 오늘 선군시대에 와서 명산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5(1996)년 11월 어느날 칠보산을 인민의 명승지로, 문화유원지로 꾸리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이곳을 찾아주시였다.

외칠보로부터 해칠보까지의 험준한 산발을 오르내리시며 곳곳의 자연미와 환경상태를 하나하나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칠보산의 류다른 경치와 아름다움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거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때문에 칠보산이 오랜 세월 묻혀있었다고 하시면서 칠보산은 명산중의 명산이라고, 6대명산의 첫자리에 놓아도 손색이 없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칠보산의 단풍을 보시며 금강산, 구월산의 단풍철도 좋지만 여기가 더 좋을것 같다고 하시였고 울창한 산림을 보시고서는 숲이 무성하여 큰물이 나지 않아 좋겠다고 하시였으며 칠보산의 경치는 어느 계절이나 다 좋겠지만 소나무가 흰눈을 이고 서있고 바위들이 은빛세계를 펼치는 설경이 제일 좋을것이라고 이르시였다.

이어 동행한 일군들을 데리고 내칠보의 승선대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푸른 산악에 붓을 달려 그려놓은듯 절묘하게 펼쳐져있는 칠보산의 기암군상들을 보아주시고나서 청신한 기운을 내뿜는 울긋불긋한 단풍숲과 끝이 보이지 않는 계곡들을 가리키시며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자연인가, 칠보산은 정말 명산이라고 하시며 풍치좋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면서 관광지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해칠보백사장까지 나가시여 앞으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기에 관광와서 해칠보를 구경하고 부두에 내려 해수욕도 하고 호텔에서 휴식을 하게 하면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숙소를 칠보산안에 건설하지 말고 근처에 내다가 지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주체90(2001)년 11월 칠보산유원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칠보산의 자연풍치에 어울리게 특색있게 건설된 건축물들을 보시고 함경북도의 근로자들이 인민의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칠보산은 언제 보아도 천하절경이라고 하시면서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을 비롯하여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승지들을 많이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칠보산은 오늘 조선인민의 훌륭한 문화유원지로, 6대명산의 하나로 그 이름 세상에 떨치며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선군령장의 사랑과 은정을 길이 전해가고있다.

왕 차

왕차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친어버이사랑속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아이들에게만은 변함없이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나른 콩우유차를 비겨 이르는 말이다.

주체90(2001)년 7월 8일 온 나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적시고있던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콩우유생산공정과 애기젖가루생산공정, 영양암가루생산공정 등 여러 생산공정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콩우유직장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당에 세워놓은 콩우유차를 보시고 걸음을 멈추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저 차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콩우유를 싣고 정상적으로 달렸는데 인민들은 콩우유차를 왕차라고 부른다고 말씀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왕차라?! 그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차니 왕차지.》**라고 하시며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조선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게 되자 콩우유생산과 공급에서는 일련의 난관들이 조성되게 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더라도 어린이들의 얼굴에만은 그늘이 지게 해

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에게 영양식료품을 공급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흥정할 권리가 없다고, 우리 당이 내놓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신념의 구호에는 비록 자기는 락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후대들에게만은 더 좋은 앞날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사상이 반영되여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런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있어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때에도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 지어 병원에 입원한 몇명의 어린이들에게까지 콩우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게 되였으며 조선인민들과 어린이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 구애되지 않고 장군님의 사랑을 싣고 달리는 콩우유차를 왕차라고 부르게 되였던것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10여만L의 콩우유를 중단없이 보장한데 대하여 대단히 기뻐하시며 동무들이 나의 소원을 풀어준셈이라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정녕 선군길에 태여난 시대어 왕차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미래관, 후대관이 낳은 또 하나의 전설인것이다.

녕변의 비단처녀와 구장의 양어처녀

녕변의 비단처녀와 구장의 양어처녀는 인민들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생선국을 먹이시려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태여난 시대어이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우에 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8(2009)년 8월 18일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흐뭇한 양어풍경이 펼쳐진 구장양어장을 찾으시였다.

60년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이 양어장에 오셨던 추억을 안으시고 양어장을 돌아보시는 그이께서는 무척 감회가 깊으시였다.

묘향산줄기와 이어져있는 룡문산아래에 위치하고있는 구장양어장은 동룡샘물을 물원천으로 하고있었는데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관계없이 물의 온도가 13℃이고 초당 물이 제일 많이 나올 때에는 무려 8 000L나 되였다.

찌물쿠는 무더위를 순간에 날려보내며 시원한 바람을 온몸에 뿌려주는 원소며 푸른 물을 헤가르며 떼지어 오가는 보기만 해도 탐이 나는 멋있는 칠색송어들…

보고보아도 더 보고싶고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정말 희한한 양어기지는 물고기떼가 욱실거리고 수양버들이 휘늘어진 못들도 볼만 하였지만 어디서나 천지개벽을 노래하며 경쟁을 하듯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벅찬 현실에 대한 생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나 커다란 흥분에 휩싸이게 하였다.

일군들은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평안북도의 천지개벽을 안아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은정속에서 이곳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반영한 노래 《녕변의 비단처녀》도 나오게 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올리였다.

주체89(2000)년 6월 21일 녕변견직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요즘 어떻게 하면 질좋은 비단과 비로도를 많이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비단과 비로도옷을 해입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녕변

견직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비단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앞으로 견직설비를 갱신하여 질좋은 비단과 비로도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녕변견직공장에서 방직공처녀들이 비단짜는 모습을 《녕변의 비단처녀》라는 노래에 담았는데 구장양어장의 양어공처녀들의 모습은 《구장의 양어처녀》라고 노래하여야 할것 같다고 몸소 노래의 상까지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양어를 발전시키는것도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하시며 일군들은 양어를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양어를 잘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비단처녀에 이어 오늘은 양어처녀를 노래하게 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성스런 희열의 세계, 이 아름다운 위인정서에는 맑고 푸른 하늘아래 행복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조선의 벅찬 현실이 생생히 그려져있었다.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 녕변의 비단처녀의 노래는 행복한 래일에 대한 조선인민의 신념과 희망을 불태워주고 끝없이 속삭여준 시대의 메아리였다면 구장땅에서 울리게 된 양어처녀의 노래는 마침내 행복의 대문을 열고 꽃피는 락원에 들어서게 된 변이 나는 해의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는것이였다.

현대판 《홍길동》

현대판 《홍길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첨단돌파전의 앞장에서 종횡무진하며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평범한 과학자에게 붙여주신 애칭이다.

주체99(2010)년 9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의 어느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몇해사이에 근본적으로 일신된 공장의 전경도앞에서 이곳 책임일군의 해설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합조종실로 향하시였다.

그런데 조종실에 들어서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누군가를 보고 반색하시며 손을 들어주시는것이였다.

당시 조종실에는 여러명이 있어서 동행하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알아보신 사람이 누구인지 미처 알지 못한채 그이의 뒤를 따라섰다.

이윽고 공장책임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와서 첨단수준의 종합자동화체계를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였다고 보고드리였다.

그러면서 한쪽에 서있는 과학자를 가리켜드리며 이번의 기술개건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한 동무이라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서둘러 그에게로 다가가시였다.

뜻밖의 감격에 접한 과학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자동화체계연구실 실장이라고 정중하게 보고올리였다.

그의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척 반가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실장동무는 지난 6월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과일말린편 공장에서 만났던 동무인데 오늘은 또 여기서 만납니다.》

순간 과학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를 알고계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그이께서 조종실에 들어서실 때 이미 그를 알아보시였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모두가 생각밖의 일을 두고 기쁨과 격정을 금치 못하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자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동무는 현대판 〈홍길동〉이요!》**라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 말씀에 과학자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에서 바라는 이 공장의 현대화실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연구사들에게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이들을 적극 떠밀어준 김책공업종합대학 책임일군들에게도 감사를 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러 공장에 꾸려진 후방시설들도 돌아보시고 공장의 일군들이 로동자들을 위한 후방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광의 기념사진을 남기고싶어하는 일군들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시였다.

일군들은 너무 기뻐 저마다 위대한 장군님곁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그 모습을 즐겁게 여겨보시던 그이께서는 누군가를 찾으시는듯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문득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홍길

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책임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그가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아쉬운 심정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에서 다음단계 현대화를 완성하기 전에는 과학자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도 그들을 기다린다고 하시며 과학자의 미더운 모습을 다시금 그려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떠나가신 후 그이께서 자기를 또다시 《홍길동》이라 하시며 찾아주신 사실을 알게 된 과학자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평범한 과학자에게 베풀어주신 각별한 사랑과 은정속에는 온 나라 과학자들이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강성국가건설의 각이한 전구들을 전설속의 《홍길동》처럼 날파람있게 종횡무진하며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는것이였다.

《량강도솜장화》

《량강도솜장화》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림업용솜신으로 만든 솜장화가 인민들이 좋아하는 량강도의 특산품이라는 의미에서 친히 달아주신 이름이다.

주체99(2010)년 5월 1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량강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면서 혜산신발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생산흐름선에 따르는 현장들을 돌아보시고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솜신발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추운 지대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겨울신발들이였다.

그중에서도 두텁게 솜을 넣고 맵시있게 끈을 조여매게 만든 목이 긴 솜신발은 모두의 눈길을 끌었다.

신발을 손에 드시고 세심히 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목높은 림업용솜신》이라고 쓴 제품이름앞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신발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물론 신어본 사람들도 이런 신발은 국제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는 이야기 등 혜산신발공장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있는데 대하여 성수가 나서 이야기하는 일군들의 자랑을 무랍없이 다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에서 인민들을 위하여 훌륭한것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어울리게 이름도 잘 붙여야 하겠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좋아하는 량강도의 특산품인것만큼 신발이름을 《량강도솜장화》라고 다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시였다.

메주풍경

메주풍경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지지도의 길에 들리신 제대군인가정의 웃방벽에 주런이 매달아놓은 메주덩이들이 보기 좋다고 하여 평가하신 풍경이다.

메주는 찐밥 또는 찐콩에 메주씨를 심어서 곰팡이를 자래워 효소를 축적시킨것이다.

메주로 담근 장은 조선사람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식물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고 험한 마식령을 넘으시여 새로 건설된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신것은 주체98(2009)년 1월초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 전기화된 문화주택에 새살림을 편 발전소제대군인로동자 신혼부부의 가정도 방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뜨락에 서시여 과일나무를 5그루 심었다는데 잘하였다고 치하도 하시고 방안에 들어서시여서는 3겹 창문유리의 밀페를 질적으로 하여 찬기운이 스며들지 않게 하라고 틩겨도 주시였다.

부엌에 내려가시여서는 흰 유리그릇과 단지가 많다고, 평양사람들이 단지가 없다고 하는데 이 집에 와서 가져가라고 해야겠다고 웃음의 말씀도 하시고 결혼식사진을 보시면서는 꽃이 많고 먹을것도 많다고 하시며 시종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시던 장군님께서는 웃방벽에 주런이 매달아놓은 메주덩이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하필이면 전기화된 멋들어진 새집안벽에 뜬내나는 메주덩이를 매달아놓을건 뭐람…)

일군들이 제대군인부부를 나무라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세대주는 얼굴이 벌개졌고 안해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 밝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집안벽에 메주덩이를 매달아놓았는데 멋있습니다. 농촌에서만 볼수 있는 류다른 풍경입니다. 바로 이런것이 사회주의선경입니다. 평양시살림집들에는 벽에 홰보를 치지만 이 집에는 벽에 메주덩이를 매달아놓았는데 홰보를 친것보다 더 보기 좋습니다. 메주 뜬 냄새가 구수한것이 좋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메주덩이를 귀한 보물인양 두드려도 보시고 쓸어만지기도 하시며 이렇게 가르쳐주시였다.

메주장은 심장혈관이 경화되는것을 막고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곰팽이는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되여있지만 메주장을 먹으면 암도 예방할수 있다고 한다. 그밖에도 메주장에는 장수에 필요한 좋은 성분들이 많다고 한다. 도이췰란드의사들은 우리 사람들에 대한 심장관상동맥조영촬영을 하면서 혈관들이 깨끗한것을 보고는 확실히 메주로 장을 담그어 먹는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제는 유럽나라들에서도 메주로 장을 담그어 먹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양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것 같다.…

세계에서 으뜸인 조선고유의 메주장에 대한《현지특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여 제대군인부부와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앞으로 앓지 말고 행복하게 잘살라고 사랑의 축복도 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소금만 있으면 메주를 가지고 간장도 만들어 먹을수 있지, 이 집에서 메주로 간장을 잘 만들어놓으면 내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들려 몇병 가져다 맛보려고 해, 간장을 가지러 오겠으니 잘 만들어놓으라구라고 정겹게 당부하시고 차에 오르시였다.

제대군인부부는 또다시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차를 오래도록 바래워드리며 온 나라 천만군민의 열화와 같은 충정의 마음을 합쳐 이렇게 뜨거운 격정을 터쳤다.

정녕 **김정일**장군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어버이이시라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양어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한 자랑과 긍지를 반영한 시대어이다.

주체98(2009)년 6월 2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양어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한동안 깊은 정회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양어장에서 그전에는 칠색송어를 많이 길렀는데 최근에는 철갑상어도 기르고있다고, 우리 나라에서 철갑상어양어에 성공한것자체가 대단하다고, 그전에는 철갑상어를 양어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을 만나시여서도 양어장의 흐뭇한 풍경이 눈에 선하신듯 또다시 철갑상어를 화제에 올리시고 흥분된 어조로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바다로 나가게 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철갑상어의 바다양어를 꼭 실현시켜야 한다고 이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에게 철갑상어고기맛과 알젓맛을 보이고싶은것이 나의 심정이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사정이 긴장하여 풀뿌리를 캐먹으면서도 변함없이 자기 일터와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낸 우리 인민들에게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루빨리 남들이 부러워하도록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어야 한다.…

전선시찰의 나날 길가에 돋아난 햇풀을 보시고도 달리는 차를 멈춰세우시고 그것으로 끼니를 에우는 인민들생각으로 아픈 마음을 달래지 못하시던 그 나날의 고뇌가 아직도 가슴

에 맺혀서인가 저으기 격한 그이의 음성이 일군들의 흉벽을 두드렸다.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이 얼마나 자랑찬 현실입니까. 만난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의 분수령에 오르게 된 오늘 나는 시련도 많고 곡절도 많았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혁명은 바로 이런 재미에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자부심과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됩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이것이 나의 활동의 근본원칙이고 생의 목표입니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을 강성국가의 분수령에 새기는 비문처럼 정히 받아안았다.

주체99(2010)년 11월 2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룡연바다가양어장과 룡정양어장을 돌아보시였다.

철갑상어는 인공번식에 의한 담수양어로 기르기 힘든것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오늘 조선에서는 여러 공정에 걸치는 철갑상어의 양어공정을 확립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철갑상어를 많이 길러 널리 번식시키며 바다에서도 기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철갑상어를 바다물에 완전히 적응시키는것은 양어가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양어분야에서의 최첨단기술이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지니고 철갑상어를 바다물에 완전히 적응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양어분야에서도 첨단을 돌파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실내양어장의 못들에 우글우글한 아주 용맹스럽게 생긴 철갑상어들을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철갑상어들을 바다물에 완전히 적응시키는데 성공한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양어가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 바다철갑상어라고 하면서 국제시장에 내다 파는것이 더러 있는데 그것은 염도가 15‰정도되는 바다물에까지 적응시킨것입니다. 철갑상어는 염도가 15‰정도되는 바다물에까지 적응된 다음에는 염도를 0.5‰만 더 높여도 견디여내지 못하고 나가너부러집니다. 우리들은 여러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험적단계를 거쳐 철갑상어를 바다물에 완전히 적응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략과 담력을 주시고 최첨단과학기술지식을 안겨주시였기때문에 거둘수 있은 성과입니다.》

고마움에 젖은 양어장일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이곳 일군들에게 돌려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이곳에서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나아간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이 희한한 현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우리 당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 …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바야흐로 솟아오르게 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면모가 그 말씀속에 집약되여 일군들의 눈앞에 펼쳐지는듯 싶었다.

5

6.15북남공동선언

6.15북남공동선언은 조선의 민족분렬력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들을 천명한 선언, 주체89(2000)년 6월 15일에 채택발표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의지와 불면불휴의 로고, 애국애족의 결단에 의하여 주체89(2000)년 6월에 나라가 분렬된지 55년만에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길지 않은 3일동안에 무려 10차에 걸쳐 많은 시간을 김대중을 비롯한 남조선집권상층과의 사업에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대화방법과 철의 론리, 통일의지에 의하여 회담들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으며 그 내용을 담은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게 되였다.

공동선언의 기본핵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다.

6.15북남공동선언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갈데 대한 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의 교환과 비전향장기수송환문제, 인도주의적지원문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갈데 대한 문제,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쌍방이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할데 대한 문제 등이 명기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제시하시고 시종일관 견지하여오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리념이 구현되여있으며 통일을 바라는 전민족의 념원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의지가 집약되여있다.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으며 조국통일을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하려는 민족자주선언이며 온 겨레가 단일민족의 모습으로 돌아와 서로 도우며 화목과 번영을 이룩해나갈것을 약속한 민족협력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이다.

주체90(2001)년 1월 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지난해에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 이것은 조국통일운동사에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목표와 방향,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투쟁강령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을 정식화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립장과 방도를 제시해주심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온 겨레가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 불멸의 기치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해전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의 친필비앞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가리켜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라고 천명하신바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월 4일 로작에서 그 심오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명제들에 담아 전면적으로 폭넓게 밝혀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식화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통일헌장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우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북과 남이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또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조선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는 통일의 기치이다.

하기에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의 강령적지침으로,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대강으로 되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을 새롭게 정립하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전일적으로 집대성하신것은 력사와 시대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마련하신 력사적인 평양상봉에서 밝히시고 공동선언에 명문화해주신 자주통일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에는 자주통일사상이 집약되여있다. 거기에는 자기 민족문제는 민족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민족자결의 사상과 조국통일은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자각과 의지, 확신이 담겨져있다.

주체89(2000)년 6월 1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대중과 단독회담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수뇌들이 처음으로 만난것만큼 전세계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고 7천만겨레의 시선이 쏠리고있다고

하시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첫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상봉하는것만큼 7천만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주는 선언적인 문건을 하나 내놓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의 민족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면서 여기에 동의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김대중은 자기에게 무슨 반대가 있겠는가고 하면서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때 그이께서는 그러면 오늘 우리들사이에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한것으로 하자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사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였으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6.15북남공동선언의 핵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주체89(2000)년 6월 30일 재미녀류기자 문명자와의 담화에서 **《북남공동선언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조항이 기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1(2002)년 2월 26일과 28일에 걸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북남공동선언에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

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민족단합의 강령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입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명실공히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자주사상과 애국애족의 넋이 깃든 고귀한 결정체이다.

민족대단결5대방침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시하신 방침을 말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높이 받드시고 통일의 근본열쇠인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사업을 곧 조국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으로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민족대단결의 지침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주체87(1998)년 4월 18일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을 맞으며 진행한 중앙연구토론회에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보내주시였다.

서한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력사적문헌이며 현시기 민족대단결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훌륭히 구현하여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의 본질과 정당성, 의의에 대하여 론술하시면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며 바로 이러한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대단결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평생의 로고를 뜨겁게 회고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팀없이 계승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펼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다음과 같은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였다.

-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고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이며 애국애족과 매국배족, 통일로선과 분렬로선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이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조선민족자신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하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은 불멸의 통일강령이였다.

6.15통일시대

6.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조선인민이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는 력사적시대이다.

6.15통일시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기 시작한

주체89(2000)년 6월 15일 이후시기를 말한다.

세기와 세기가 바뀌는 력사의 분기점인 주체89(2000)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새해 정초부터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월에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는것을 민족의 중대사로 보시고 이 사업을 위해 백수십차례의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으며 그 준비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평양에서는 온 민족,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여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사상에 대한 합의가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였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리정표를 가지게 되였으며 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되였다.

하기에 6.15통일시대에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6.15북남공동선언에 명시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 나라의 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이다.

10.4선언

10.4선언은 주체96(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채택 공포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선군정치에 기초한 조국통일정책과 6.15북남공동선언에 의해 북과 남, 해외에서 민족의 자주통일기운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조국통일운동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되고있던 때인 주체96(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인 10.4선언이 채택되였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것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위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특기할 사변으로 되였다.

10.4선언의 채택으로 조선민족은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는 실천강령, 행동의 지침을 받아안게 되였다.

10.4선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민족애와 확고한 통일의지가 뜨겁게 어려있는 통일대강이다.

6.15북남공동선언의 핵인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그에 따라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해나갈것을 확약한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그 해결방도들이 명기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하여 명시한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밝혀주고있을뿐아니라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도록 온 민족이 경제, 문화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인도주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해나갈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7(2008)년 9월 5일 당보《로동신문》과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에 준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입니다.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입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렬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합니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

신념과 의지의 강자는 남조선에서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수십년세월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과 지조를 지켜온 신념과 의지의 강자, 불굴의 애국투사들을 말한다.

주체89(2000)년 9월 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에 의하여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한날한시에 공화국의 품에 안기는 력사적사변이 일어났다.

사상전향을 끈질기게 강요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30년, 40년이상의 기나긴 세월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과 지조를 지켜온 비전향장기수들을 뜨거운 동지적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의 첫해에도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였다.

주체90(2001)년 6월 6일 해당부문의 한 일군으로부터 비전향장기수들과의 사업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그려보시는듯 절절하신 음성으로 나는 비전향장기수들이 남조선에 있을 때나 당의 품에 안긴 지금이나 언제나 그들을 잊지 않고있다고 하시면서 비전향장기수들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고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남조선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을 우리 당의 품으로 데려온것을 령도자가 전사들에게 베풀수 있는 가장 숭고한 동지적사랑으로, 혁명적의리로 간주하고 그들을 데려오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왔다고, 그들을 당의 품에 데려왔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그러나 당의 품에 안기려던 비전향장기수들의 첫째가는 소원이 이루어진것만큼 그들이 안긴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이 전체 우리 민족과 비전향장기수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므로 그 실현을 위한데 힘을 넣다보니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하였다고, 앞으로 우리는 서로 만날 기회가 있게 될것이라고 은정넘친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동안 옥중에서 고생한 비전향장기수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깊이 마음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직후에 벌써 비전향장기수들이 돌아오면 그들에게 줄수

있는 사랑을 다 주어 그들이 청춘을 되찾고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해주자고 하시며 그 준비사업을 잘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고 그들이 도착한 후에는 당의 사랑이 그대로 가닿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십년세월 옥중에서 한겹의 수의만을 걸치고 살아온 그들에게 계절에 따르는 고급옷류들과 신발, 모자,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일식으로 갖추어주시고 병마에 시달려온 그들의 건강을 특별히 념려하시여 강력한 의료진과 함께 고급약재, 귀중한 보약들을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독감방에서 사회적 및 정신적 고독과 고통속에서 신음했던 그들이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과 약동하는 현실을 마음껏 보고 즐기도록 해주시고 현대적인 살림집도 마련해주시였다.

이렇듯 금이야 옥이야 떠받들며 보살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넘치는 사랑으로 엮어진 나날속에 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잃었던 청춘도 되찾았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무한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비전향장기수란 이름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고귀한 칭호로 빛나고있으며 비전향장기수들은 만사람의 존경과 축복을 받으며 영광과 행복의 최고절정에서 인생의 가장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다.

선 군 시 대 어

집 필: 채희원
편 집: 안수영
낸 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 행: 주체102(2013)년 8월 30일

ㄱ-3835060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2(2013)년

ISBN 978-9946-0-1054-0

9 789946 010540 >